

심심할 때 마다 푸는 26수특 문법문제

#국어영역

25004-0021

〈보기〉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선생님: 선생님이 자음이나 모음 하나가 서로 다른 단어 쌍을 준 비했어요. 단어 쌍에서 서로 다른 자음이나 모음을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 보세요. 그리고 발음 기관의 움직임이 음운 체계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말해 볼까요?

소리, 수리

고니, 고리

고립, 고집

수저, 수조

모기, 포기

- ① '소리'와 '수리'의 'ㄱ'와 'ㄴ'를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다름.
- ② '고니'와 '고리'의 'ㄴ'과 'ㄹ'을 발음할 때 조음 위치가 다름.
- ③ '고립'과 '고집'의 'ㄹ'과 'ㅈ'을 발음할 때 조음 방법이 다름.
- ④ '수저'와 '수조'의 'ㄱ'과 'ㄴ'를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다름.
- ⑤ '모기'와 '포기'의 'ㅁ'과 'ㅍ'을 발음할 때 조음 위치가 다름.

25004-0022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습 활동 〉

발음할 때 된소리되기, 비음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는 해당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된소리되기, 비음화, 거센소리되기를 고려하여, 다음의 문장을 표준 발음으로 소리 내어 읽을 때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 그는 법학과 한국학을 연구하는 박학다식한 사람이다.

㉡ 읍내를 떠나 적막한 벽지에 오니 미련도 잡념도 속속 사라진다.

- ① ㉠의 '법학과', '한국학을'을 소리 내어 읽을 때, 표기와 달리 거센 소리가 나타난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어.
- ② ㉠의 '박학다식한'을 소리 내어 읽을 때, 종성 자리에서 'ㄱ'을 여러 번 발음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어.
- ③ ㉡의 '적막한'을 소리 내어 읽을 때, 비음화와 거센소리되기가 한 번씩 일어난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어.
- ④ ㉡의 '읍내를'과 '잡념도'를 소리 내어 읽을 때, 첫 번째 음절의 종성 자리에 있는 자음을 모두 비음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어.
- ⑤ ㉡의 '벽지에'와 '속속'을 소리 내어 읽을 때, 두 번째 음절에서 된 소리가 나타난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어.

25004-0023

〈 보기 〉

표준 발음법 제21항은 “위에서 지적한 이외의 자음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에서 지적한 이외의 자음 동화’가 무엇인지는 이 조항에서 제시하는 예시로 알 수 있다. 제21항에서는 ‘감기’를 [감:기]가 아니라 [강:기]로 발음하는 것, ‘웃감’을 [온감]이 아닌 [옥감]으로 발음하는 것, ‘문법’을 [문뺨]이 아닌 [뭉뺨]으로 발음하는 것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강:기], [옥감], [뭉뺨]의 공통점은 앞에 있는 자음이 뒤에 있는 자음의 조음 위치와 같은 위치의 자음으로 소리가 변했다는 것이다. ‘친구’를 [칭구]로 발음하는 것도 이 현상에 포함되는 데, 모두 치조음이나 양순음이 뒤에 오는 양순음이나 연구개음의 영향을 받아 다른 자음으로 변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표준 발음을 익힐 때, ㉠앞에 오는 자음이 뒤에 오는 자음의 조음 위치와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단어의 발음에 유의해야 한다.

- ① 감각, 익명 ② 금방, 독서대 ③ 검사, 목소리
- ④ 금강산, 꽃길 ⑤ 곧바로, 국자

25004-0024

〈보기〉에 제시된 단어의 발음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돛대[돛때], 발독[발뚝]
- ㉡ 꽃매미[꼰매미], 부엌문[부엌문]
- ㉢ 말여물[말려물], 생활용품[생활룽품]
- ㉣ 구급약[구:급약], 색유리[생누리]

- ① ㉠, ㉡에서는 교체 유형으로 분류되는 음운 변동만 일어난다.
- ② ㉠, ㉡에서는 종성으로 발음될 수 없는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 ㉣에서는 인접한 자음끼리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 ㉣에서는 단어마다 음운 변동이 세 번씩 일어난다.
- ⑤ ㉢, ㉣에서는 모두 같은 자음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25004-0025

<보기>의 ㉠~㉤을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다음은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쓴 규범 표기를 발음할 때의 표준 발음과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비표준 발음을 조사해서 비교해 놓은 자료이다. 음운 변동의 측면에서 규범 표기와 표준 발음, 비표준 발음을 비교해 보자.

	규범 표기	표준 발음	비표준 발음
㉠	빛이	[비치]	[비시]
㉡	숨이불	[숨:니불]	[소:미불]
㉢	인사말 [인사말] [인산말]		
㉣	비윤리적	[비:율리적]	[비:윤리적]
㉤	기습에는	[기습게는]	[기스게는]

- ① ㉠: 받침으로 표기된 자음을 표준 발음에서는 그대로 발음했고, 비표준 발음에서는 다른 자음으로 발음했다.
- ② ㉡: 표준 발음에서는 교체가 일어났고, 비표준 발음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 ③ ㉢: 표준 발음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만, 비표준 발음은 첨가가 일어나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 ④ ㉣: 표준 발음에서는 'ㄴ'을 'ㄹ'로 교체했지만, 비표준 발음에서는 'ㄹ'을 'ㄴ'으로 교체하였다.
- ⑤ ㉤: 표준 발음에서는 받침으로 표기된 자음을 모두 발음하였고, 비표준 발음에서는 탈락이 일어나 그중 한 자음만 발음했다.

25004-0026

<보기>의 ㉠~㉤을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환경을 파악할 때, 음운과 관련된 조건 말 고도, 어간, 어미, 접사 등 형태소와 관련된 조건까지 알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의 '해당 음운 변동이 일어난 사례'와 '비교할 사례'를 활용하여, 해당 음운 변동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탐구해 보자.

	음운 변동	해당 음운 변동이 일어난 사례	비교할 사례
㉠	된소리되기	안다[안:따]	언덕[언덕]
㉡	된소리되기	씩다[씩따]	국밥[국빳]
㉢	구개음화	곧이[고지]	곧이어[고디어]
㉣	'ㅎ' 탈락	짚어[찌어]	어학[어:학]
㉤	'ㅡ' 탈락	쓰- + -어 → [씨]	쓰이다[쓰이다]

- ① ㉠의 된소리되기는 한 형태소로 된 명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 ② ㉡의 된소리되기는 어간과 어미의 결합이라는 조건과 상관없이 일어나는군.
- ③ ㉢의 구개음화는 'ㄷ' 뒤에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면 일어나지 않는다.
- ④ ㉣의 'ㅎ' 탈락은 단어의 품사와 상관없이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군.
- ⑤ ㉤의 'ㅡ' 탈락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가 결합하면 일어나지 않는다.

25004-0027

<보기>는 표준 발음법 조항의 일부이다.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 4항 'ㄱ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붙임] 'ㄱ, ㆁ'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제 5항 'ㄱ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쨌, 처]로 발음한다.
다만 2. '예, 레' 이외의 'ㅋ'는 [ㄱ]로도 발음한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ㄱ'는 [ㄱ]로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ㅇ]로, 조사 '의'는 [ㄱ]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① '희망 사항'에서 '희'를 발음할 때는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 ② '세금 혜택'에서 '혜'를 발음할 때는 단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다.
- ③ '개 요즘 꽤 예뻐졌어.'에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음절은 4개이다.
- ④ '의회 정치'에서 첫음절은 단모음으로, 두 번째 음절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 ⑤ '우리의 동의'에서 세 번째 음절과 다섯 번째 음절은 둘 다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25004-0028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설익다[설릭따]
㉡ 읊는다[읍는다]
㉢ 슈는다[송는다]

- ① ㉠, ㉡에서는 모두 음운 변동이 각각 세 번씩 일어났군.
- ② ㉠에서 첨가된 음운과 ㉡에서 탈락한 음운은 서로 다르군.
- ③ ㉡, ㉢에서는 모두 음운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 ④ ㉡, ㉢에서는 모두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는 현상이 일어났군.
- ⑤ ㉠, ㉡, ㉢에서는 모두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25004-0029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국어에는 음절의 중성에 대한 제약과 관련한 음운 변동이 여럿 있다. 우선 국어에는 ㉠ 중성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올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이 자음 외에 다른 자음이 중성 자리에 놓이면 'ㄱ, ㄷ, ㅂ' 중 하나로 교체된다. 그리고 ㉡ 중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최대 개수는 1개라는 제약이 있다. 중성 자리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이게 되면 둘 중 하나가 탈락한다.

- ① '미달이문[미 : 다지문]'에서는 ㉠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 ② '밥을 굶는다[굶 : 는다]'에서는 ㉡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일어난다.
- ③ '보람된 흙일[홍닐]'에서는 ㉠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일어난다.
- ④ '그의 옆얼굴[여벌굴]'에서는 ㉠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일어난다.
- ⑤ '시냇물이 맑다[막따]'에서는 ㉠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일어난다.

25004-0030

<보기>의 ㉠과 ㉡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만을 골라 묶은 것은?

— < 보 기 > —

한 음운이 다른 음운에 닮아 가는 현상을 동화라고 한다. 이때 동화를 일으키는 음운을 동화음, 동화를 입는 음운을 피동화음이라고 부른다. 동화는 동화의 방향에 따라 동화음이 피동화음보다 앞에 있는 순행 동화, 동화음이 피동화음보다 뒤에 있는 ㉠역행 동화로 나눌 수 있다. 또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피동화음이 동화음과 동일해지는 완전 동화, 피동화음이 동화음의 일부 특성만 닮는 ㉡부분 동화로 나눌 수 있다.

같이[가치], 닳는[달른], 박물관[방물관], 신라[실라]

- ① 같이[가치], 닳는[달른]
- ② 같이[가치], 박물관[방물관]
- ③ 박물관[방물관], 신라[실라]
- ④ 같이[가치], 닳는[달른], 신라[실라]
- ⑤ 닳는[달른], 박물관[방물관], 신라[실라]

25004-0031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이중 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 국어의 반모음에는 'j'와 'w'가 있습니다. 다음의 음운 현상을 반모음과 관련지어 설명해 볼까요?

㉠ 되- + -어 → [되여], 아니- + -오 → [아니요]
 ㉡ 살피- + -어서 → [살피서], 바꾸- + -어 → [바뀌]

- ① ㉠에서는 반모음이 첨가되었고 ㉡에서는 반모음이 탈락하였다.
- ② ㉠에서는 반모음이 첨가되었고 ㉡에서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됨.
- ③ ㉠에서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었고 ㉡에서는 반모음이 첨가됨
- ④ ㉠에서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었고 ㉡에서는 반모음이 탈락함
- ⑤ ㉠에서는 반모음이 탈락하였고 ㉡에서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됨

25004-0032

다음은 겹받침의 발음과 관련한 수업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오늘은 겹받침을 가진 말의 발음에 대해 알아보시다. 겹받침을 가진 말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음운 변동은 자음군 단순화이지만, 자음군 단순화와 다른 음운 변동이 같이 적용되기도하고 자음군 단순화 대신 다른 음운 변동이나 연음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때 자음군 단순화보다 다른 음운 변동 또는 연음이 먼저 적용되어야 표준 발음에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의 표준 발음 자료를 보고, 제시된 말의 발음을 설명해 볼까요?

[표준 발음 자료]
 닭아[달가] 앓는[알른] 맑고[말꼬] 꿩지[꿀치] 벼훅이[벼훅치]

학생:

선생님: 네, 잘했습니다.

- ① '닭아[달가]'는 연음이 적용된 후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것입니다.
- ② '앓는[알른]'은 유음화가 적용된 후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것입니다.
- ③ '맑고[말꼬]'는 된소리되기가 적용된 후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것입니다.
- ④ '꿩지[꿀치]'는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된 후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것입니다.
- ⑤ '벼훅이[벼훅치]'는 구개음화가 적용된 후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것입니다.

25004-0033

밑줄 친 단어 중 <보기>의 ㉠에 해당되는 것은?

— < 보 기 > —

의존 명사는 이를 수식하는 관형어와 함께 구를 이루어야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를 말한다. 의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는 관형사, 체언, 체언 + 관형격 조사 '의', 관형사절, 명사절 등이 있는데, ㉠ 의존 명사 가운데에는 관형사절의 수식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여러 종류의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

- ① 저 모자 쓴 인가 누구지?
- ② 도시락은 각자 준비할 것.
- ③ 새집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 ④ 이 안전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 ⑤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다.

25004-0034

〈 학습 활동 〉

문장 안에서 독자적으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용언을 본용언, 본용언과 함께 쓰여 의미를 더해 주는 용언을 보조 용언이라고 한다. 다음 자료에 사용된 보조 용언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자료]

- ㉠ 나는 책을 읽고 나서 감상문을 작성했다.
- ㉡ 나는 자전거를 도서관 앞에 세워 두었다.
- ㉢ 그의 상태를 보니, 잠을 못 잤나 보다.
- ㉣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 가지고 배탈이 났다.
- ㉤ 나는 동생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었다.

- ① ㉠의 '나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났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② ㉡의 '두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③ ㉢의 '보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④ ㉣의 '가지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의 결과나 상태가 유지됨으로써 뒷말의 행동이나 상태가 유발되거나 가능하게 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⑤ ㉤의 '주다'는 '남에게 앞말이 뜻하는 일이나 감정을 겪게 하거나 느끼게 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25004-0035

〈보기〉에 주어진 '학습 과제'를 수행한 결과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형태소는 뜻을 가진 언어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형태소는 하나만으로도 의미를 가지지만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더 큰 의미를 가진 단위를 이루기도 하는데요, 형태소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지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형태소의 의미가 실질적 개념을 나타내는지 형식적 관계를 나타내는지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누어집니다. 다음 학습 과제를 수행해 볼까요?

[학습 과제] 다음 문장의 형태소 분석을 해 봅시다.

- ㉠ 좋은 책은 가르침을 준다.
- ㉡ 그곳에는 벌써 꽃이 피었겠다.

학생:

- ① ㉠보다 ㉡에 포함된 형태소의 개수가 더 많습니다.
- ② ㉠의 '책'과 ㉡의 '꽃'은 각각 하나의 형태소로 볼 수 있습니다.
- ③ ㉠의 '좋은'의 '중 -'과 ㉡의 '벌써'는 모두 실질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 ④ ㉠의 '가르침'은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가 결합하여 더 큰 의미를 가진 단위가 되었습니다.
- ⑤ ㉠의 '준다'에서는 2개의 형식 형태소를, ㉡의 '피었겠다'에서는 3개의 형식 형태소를 분석해 낼 수 있습니다.

25004-0036

〈보기〉의 ㉠~㉣의 사례가 모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기 〉

복합어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어근과 접사로 나뉜다. 어근은 단어의 중심을 이루는 구성 요소이므로 단어라면 반드시 하나 이상의 어근을 포함한다. 접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어근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어근의 앞에 붙는 접두사와 어근의 뒤에 붙는 접미사가 있다. 따라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거나,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는 복합어의 경우에는 ㉠ '어근 + 어근', ㉡ '어근 + 접미사', ㉢ '접두사 + 어근' 가운데 어느 하나의 내부 구조를 갖는다.

	㉠	㉡	㉢
①	눈비	정답다	헛수고
②	높다	슬기롭다	햇나물
③	봄비	자랑스럽다	길이
④	덥다	참깨	가위질
⑤	반달	첫사랑	되감다

25004-0037

〈보기〉를 참고하여 단어의 구성 요소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근: 단어의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예) '먹이'의 '먹-', '강물'의 '강'과 '물' • 접사: 어근에 붙어 어근에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어근의 뜻을 제한하는 부분 예) '먹이'의 '-이', '꽃사과'의 '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간: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 예) '먹다', '먹고', '먹지'의 '먹-' • 어미: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에 덧붙여 형식적 의미를 갖는 부분 예) '먹다', '먹고', '먹지'의 '-다', '-고', '-지'

맨땅에 그림 그리기를 즐기던 누이동생이 떠올랐다.

- ① '맨땅'은 어근 '땅'에 접사 '맨-'이 결합한 형태이군.
- ② '그림'은 어간 '그리-'와 어미 '-ㅁ'이 결합한 형태이군.
- ③ '그리기'는 어간 '그리-'와 어미 '-기'가 결합한 형태이군.
- ④ '즐기던'은 어간 '즐기-'가 어미 '-던'과 결합한 형태이군.
- ⑤ '누이동생'은 어근 '누이'와 어근 '동생'이 결합한 형태이군.

25004-0038

<보기>의 ㉠,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어근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개 념	'명사 + 명사',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 '용언의 연결형 + 용언의 어간'과 같이 어근이 결합하는 방식이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 합성어	'용언의 연결형 + 용언의 어간'과 같이 어근이 결합하는 방식과 같은 합성어 '용언의 어간 + 명사', '부사 + 명사'와 같이 어근이 결합하는 방식이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지 않은 합성어
사 례	㉠	㉡

- ① ㉠:이른바 ② ㉠:골라잡다 ③ ㉡:쌈밥
 ④ ㉡:날뛰다 ⑤ ㉡:산들바람

25004-0039

<보기>의 ㉠, ㉡,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동사, 형용사는 용언으로서 서술어로 쓰이고 활용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많다. 활용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 '- 는 -, -ㄴ-'이 동사 어간에는 결합하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결합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 현재 시제의 감탄문에서 동사 어간에는 '- 는구나'가 결합하고, 형용사 어간에는 '- 구나'가 결합한다. 또한 ㉢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동사 어간에는 '- 는'이 결합하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 ㄴ/- 은'이 결합해 차이를 보인다.

	㉠	㉡	㉢	
①	동	자전거가 <u>썩썩 달린다.</u>	도둑이 <u>내빼는구나!</u>	빨래를 <u>삶는 중이다.</u>
	형	오늘은 차가 <u>막힌다.</u>	모기가 <u>많구나!</u>	여기는 <u>조용한 편이다.</u>
②	동	아침에 <u>일찍 깬다.</u>	이제 <u>먹는구나!</u>	<u>오는 사람이 없다.</u>
	형	반죽이 <u>너무 질다.</u>	꽤 <u>멋지구나!</u>	<u>따뜻한 날이 이어졌다.</u>
③	동	밥은 내가 <u>산다.</u>	늦게 <u>자는구나!</u>	<u>가는 실이 필요하다.</u>
	형	꽃이 참 <u>예쁘다.</u>	모두 <u>모였구나!</u>	<u>시원한 바람이 불었다.</u>
④	동	잎이 <u>떨어진다.</u>	벌써 <u>가는구나!</u>	<u>펄펄 끓는 물이다.</u>
	형	단풍이 <u>좋다.</u>	너무 <u>맵구나!</u>	<u>눈 덮인 산이 보인다.</u>
⑤	동	매주 <u>등산을 간다.</u>	서로 <u>아는구나!</u>	<u>크는 속도가 빠르다.</u>
	형	그림이 <u>훌륭하다.</u>	잘 <u>끝냈구나!</u>	<u>좁은 길로 갔다.</u>

25004-0040

밑줄 친 단어 중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활용할 때, 특정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연음이 일어나거나 특정한 음운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음으로 끝난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어간 말 자음이 그대로 연음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ㅁ'로 끝나는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ㅁ' 탈락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예측과 달리 ㉠ 불규칙한 활용형을 보이는 용언이 있다.

- ① 차에 짐을 싣었다. ② 어금니를 꽂 물었다.
 ③ 배추가 소금에 절었다. ④ 동생의 의견을 따랐다.
 ⑤ 어느덧 목적지에 다다랐다.

25004-0041

< 보 기 >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 '다의어'라고 한다. 다의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는 하나의 의미에서 확장되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사람에게만 쓰이는 단어가 동식물에도 쓰이고, 나아가 무생물에도 쓰이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는 '햇살이 밝다.', '성격이 밝다.'의 '밝다'처럼 구체적인 의미가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되거나, 본용언뿐만 아니라 보조 용언으로도 쓰이는 '두다'처럼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식적인 의미로 의미가 확장되기도 한다. 다의어는 서로 의미가 다른 단어가 우연히 같은 형태를 가진 단어들이나 '동음이의어'와 구별해야 한다. 다의어는 한 단어이므로 국어사전에 하나의 표제어로 실리지만, 동음이의어는 서로 다른 단어이므로 별개의 표제어로 실린다. 용언의 경우에는 활용을 하므로, 용언에 대해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판단할 때에는 어간끼리 비교해야 한다.

< 자 료 >

㉠ 이 벼 품종은 가뭄을 잘 견뎌 냅니다.
 ㉡ 친구는 짜증을 내며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 감기가 얼른 나으려면, 이틀 정도 푹 쉬는 게 나아.
 ㉣ 골판지로 만든 다리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을 측정했어요.
 ㉤ 그가 신을 질질 끌며 들어오자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 ① ㉠의 '냅니다'는 형식적인 의미를 지닌 사례이고, ㉡의 '내며'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사례이므로 동음이의어의 예로 볼 수 있겠군.
 ② ㉠의 '견뎌'의 주체는 식물이고, ㉢의 '견딜'의 주체는 무생물이므로 다의어의 예로 볼 수 있겠군.
 ③ ㉡의 '만들었다'의 대상은 추상적인 것이고, ㉣의 '만든'의 대상은 구체적인 것이므로 동음이의어의 예로 볼 수 있겠군.
 ④ ㉤에서 '나으려면'은 사람의 상태를 주어로 취한 사례이고, '나아'는 사람의 행위를 주어로 취한 사례이므로 국어사전에 하나의 표제어로 실려 있겠군.
 ⑤ ㉤에서 '끌며'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쓰인 사례이고, '끌었다'는 추상적인 사고 행위에 대해 쓰인 사례이므로 국어사전에 별개의 표제어로 실려 있겠군.

25004-0046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부사어란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으로, 관형어나 다른 부사 또는 절이나 문장 전체를 꾸며 주기도 한다. 부사어는 다양한 형식으로 성립하는데,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되기도 하고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나 용언의 부사형 등이 부사어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아는 대로 그에게 사정을 설명했다.”의 밑줄 친 부분처럼, 의존 명사와 그 앞에 오는 관형어가 함께 쓰여 부사어 기능을 하기도 한다. 대체로 부사어는 필수 성분이 아니나, 어떤 서술어는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문장의 성립에 필수적인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부른다.

- ㉠ 아침으로 빵을 너무 배불리 먹었네.
- ㉡ 설마 어머니께 그 소식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
- ㉢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하던 방 안에 전화벨이 크게 울렸다.

- ① ㉠의 ‘너무’는 다른 부사를 꾸며 주고 있다.
- ② ㉡의 ‘설마’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고 있다.
- ③ ㉢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은 용언을 꾸며 주고 있다.
- ④ ㉠의 ‘아침으로’와 ㉡의 ‘어머니께’는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한다.
- ⑤ ㉡의 ‘솔직하게’와 ㉢의 ‘크게’는 용언의 부사형이 부사어로 쓰인 것이다.

25004-0047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하나의 절이 안긴절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안긴절 속의 어떤 성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안은 문장의 한 성분이 가리키는 대상과 같으면 생략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 (가)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거부했다.
- (나) 동생은 어제 내가 제과점에서 사 온 케이크를 먹고 있었다.
- (다) 인태가 나에게 내일 9시까지 도서관에 오라고 말했다.

(가)의 명사절 속의 서술어 ‘일하기’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우리’인데 안은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우리’와 같아서 생략되었고, (나)의 관형사절에서도 목적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케이크’가 같은 방식으로 생략되었다. (다)는 인용절 속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결국 안은문장의 부사어 ‘나에게’가 가리키는 대상과 같아서 인용절의 주어가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① 그는 경찰에게 학생 신분임을 밝혔다.
- ② 세종 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과학적 문자이다.
- ③ 우리 팀이 결승전에서 무너졌던 사건은 충격이었다.
- ④ 언니는 동생한테 점심으로 떡볶이를 먹겠냐고 물었다.
- ⑤ 애써 찾아간 집에서도 우리는 그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25004-004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모든 일은 내가 생각하기에 달렸다.
- ㉡ 눈이 오겠다던 예보가 잘못됐음이 분명해졌다.
- ㉢ 이것은 할머니께서 어머니께 물려주신 목걸이가 아니다.

- ① ㉠에는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 기능을 하는 안긴절이 있다.
- ② ㉡에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 기능을 하는 안긴절이 있다.
- ③ ㉢에는 조사와의 결합 없이 관형어 기능을 하는 안긴절이 있다.
- ④ ㉢과 달리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절이 있다.
- ⑤ ㉡과 달리 ㉢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절이 있다.

25004-0049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습 활동 〉

우리말에서는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주체를 높여야 하는 경우,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객체를 높여야 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서 높임 표현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때 주체 높임 또는 객체 높임의 대상은 홀문장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겹문장의 안긴절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은 특수 어휘와 같은 어휘적 수단과 조사, 어미 등의 문법적 수단으로 실현된다. 주어진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도록, 문장의 높임 표현을 올바르게 수정해 보자.

[조건]

- ㉠ 주체를 높이기 위해 어휘적 수단을 쓴 경우
- ㉡ 주체를 높이기 위해 문법적 수단을 쓴 경우
- ㉢ 객체를 높이기 위해 어휘적 수단을 쓴 경우
- ㉣ 객체를 높이기 위해 문법적 수단을 쓴 경우

	조건	수정 전 → 수정 후
①	㉠, ㉡	할아버지가 낮잠을 잔다. → 할아버지께서 낮잠을 주무신다.
②	㉠, ㉣	우리는 시골에 있는 부모님에게 소포를 보냈다. → 우리는 시골에 있으시는 부모님께 소포를 보냈다.
③	㉡, ㉣	삼촌이 할머니를 데리러 기차역에 갔다. → 삼촌께서 할머니를 모시러 기차역에 가셨다.
④	㉡, ㉣	나는 선생님이 부르다는 말을 듣고 선생님에게 갔다. → 나는 선생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선생님께 갔다.
⑤	㉢, ㉣	동생이 새로 개장한 백화점에서 어머니에게 줄 선물을 사 왔다. → 동생이 새로 개장한 백화점에서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사 왔다.

25004-0050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안’이나 ‘-지 않다’에 의한 부정문은 주체의 의지로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않음을 나타내기도하고, 어떤 상태가 단순히 그러하지 않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반면 주체의 의지가 아닌 그의 능력이나 다른 외부의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못’이나 ‘-지 못하다’를 사용한다. 이때는 주로 동사가 서술어로 쓰인다. 그런데 형용사에 ‘-지 못하다’가 쓰이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긍정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기대치로 하여 그 기대치에 못 미침을 의미하는 문장이 된다.

〈 보기 2 〉

- ㉠ 서울에는 벚꽃이 아직 안 피었네.
- ㉡ 갓 태어난 아기는 아직 목을 가누지 못한다.
- ㉢ 나는 졸렸지만, 시험공부를 하느라 낮잠을 자지 않았다.
- ㉣ 그는 있는 힘껏 뛰어가 보았지만, 버스를 붙잡지는 못했다.
- ㉤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야 하는데, 폭설 때문에 도저히 못 가겠다.

- ① ㉠: 대상의 상태를 단순히 부정할 때, ‘안’에 의한 부정문이 쓰일 수 있다.
- ② ㉡: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지 못하다’에 의한 부정문이 쓰일 수 있다.
- ③ ㉢: 주체의 의지가 반영될 때, ‘-지 않다’에 의한 부정문이 쓰일 수 있다.
- ④ ㉣: 주체의 능력이 부족할 때, ‘-지 못하다’에 의한 부정문이 쓰일 수 있다.
- ⑤ ㉤: 외부의 상황이 원인으로 작용할 때, ‘못’에 의한 부정문이 쓰일 수 있다.

25004-0051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문장 ㉠~㉤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서술어는 일정한 수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성분의 수를 자릿수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 서술어를 해당 자릿수에 따라 각각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라고 부른다.

- ㉠ 저 옷 예쁘다.
- ㉡ 먹구름이 비로 변했다.
- ㉢ 관객은 연주자에게 박수를 보냈다.
- ㉣ 가을비가 소리도 쓸쓸하게 내린다.
- ㉤ 그는 아버지를 훌륭하다고 생각하였다.

- ① ㉠의 ‘예쁘다’는 주어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 ② ㉡의 ‘변하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③ ㉢의 ‘보내다’는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④ ㉣의 ‘쓸쓸하다’는 주어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고, ‘내린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⑤ ㉤의 ‘생각하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25004-0052

밑줄 친 관형어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문	이 옷 말고 <u>다른</u> 것을 보여 주세요.
	설명	관형사가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예문	<u>친구</u> 물건을 빌려서 사용했다.
	설명	명사가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예문	<u>할아버지의</u> 얼굴이 가끔 떠오른다.
	설명	명사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한 형태가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④	예문	오늘은 우리 동생 선물을 사러 갈 것이다.
	설명	명사구가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⑤	예문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설명	보조사 ‘는’이 결합한 관형사절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25004-0053

<보기>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선생님: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타나느냐에 따라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홑문장이라고 하고,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료에서 홑문장을 모두 골라 볼까요?

- [자료]
- ㉠ 나는 어제 사과를 꺾어 먹었다.
 - ㉡ 그는 새로 산 바지를 입어 보았다.
 - ㉢ 나는 이번 연휴에 여행을 간다.
 - ㉣ 네가 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 ㉤ 그가 어제 운동장에서 나에게 꽃을 주었다.

학생: 이 홑문장에 해당합니다.
 선생님: 네, 홑문장을 정확히 골라내었네요. 참 잘했습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25004-0054

<보기>를 참고할 때,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의미한다. 이때 대등하다는 것은 두 절이 의미상 독립적이어서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의존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또한 앞절이 뒤 절의 특정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① 그는 시인이자 화가이다.
- ② 서울은 추우나 부산은 덥다.
- ③ 이것은 먹이요, 저것은 벼루이다.
- ④ 날이 더워지자 에어컨 판매가 늘었다.
- 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보기 〉

- ㉠ 내가 결백함이 밝혀졌다.
- ㉡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 앞을 지나갔다.
- ㉢ 우리들은 밤이 새도록 토론하였다.
- ㉣ 지유가 수호가 합격했다고 선생님께 말했다.
- ㉤ 코끼리는 코가 길다.

- ① ㉠에서는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한 명사절이 문장의 주어로 기능하고 있구나.
- ② ㉡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관형사절이 '남자'를 수식하고 있구나.
- ③ ㉢에서는 부사형 어미 '-도록'이 결합한 부사절이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구나.
- ④ ㉣의 인용절 '수호가 합격했다고'는 부사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 ⑤ ㉤에서는 서술절이 특별한 표지 없이 안은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구나.

25004-0056

〈보기〉의 ㉠~㉤에 사용된 시간 표현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준비해 놓은 음식이 점점 식어 간다.
- ㉡ 나는 지금 숙제하는 동생을 도와주고 있다.
- ㉢ 당시 교사이던 그는 학생들을 잘 챙겼다.
- ㉣ 상우는 어제 집에 도착하였겠다.
- ㉤ 과제를 마무리한 사람은 집에 갈 준비를 하세요.

- ① ㉠의 선어말 어미 '-ㄴ-'은 현재 시제를 표시하고 있다.
- ② ㉡의 관형사형 어미 '-는'은 현재 시제를 표시하고 있다.
- ③ ㉢의 관형사형 어미 '-던'과 선어말 어미 '-었-'은 과거 시제를 표시하고 있다.
- ④ ㉣의 선어말 어미 '-었-'은 과거 시제를, '-겠-'은 미래 시제를 표시하고 있다.
- ⑤ ㉤의 관형사형 어미 '-ㄴ'은 과거 시제를, 관형사형 어미 '-르'은 미래 시제를 표시하고 있다.

25004-0057

〈보기〉의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단어는 문장에서 문장 성분이 되어 일정한 기능을 합니다. 한 단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기도 하고,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구나 절이 되어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단어와 문장 성분의 관계를 고려하여, ㉠과 ㉡의 문장을 분석해 봅시다.

- ㉠ 둘째 언니가 집에서 가까운 식사 장소를 미리 예약해 두었다.
- ㉡ 형은 친구가 선물한 하늘색 손수건을 서랍에 잘 접어서 두었다.

- ① ㉠, ㉡에서 체언이 체언을 꾸미는 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 ② ㉠, ㉡에서 단어 하나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 ③ ㉠, ㉡에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서술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④ ㉠에서 관형사형으로 쓰인 형용사를, ㉡에서 관형사형으로 쓰인 동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⑤ ㉠에서 두 단어가 이어진 것에 주격 조사가 결합한 구성을, ㉡에서 한 단어에 주격 조사가 결합한 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25004-0058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연호: 민정아, 내 문자 못 봤어?
민정: 아, 미안해! 답장을 깜박했다.
- ㉡ 시현: 준우야, 이거 준서한테 좀 전해 줄래?
준우: 응, 이따가 만나서 전해 줄게.
- ㉢ 규연: 이런, 오후에 비가 다시 온다네요.
도희: 아니, 비가 또 온다고요?

- ① ㉠의 '민정'과 ㉡의 '준우'는 모두 발화에 주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 ② ㉠의 '연호'는 관형어를 사용하였지만, ㉡의 '준우'는 관형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 ③ ㉠의 '연호'와 ㉡의 '시현'은 모두 호격 조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독립어를 사용하였다.
- ④ ㉡의 '시현'과 ㉢의 '규연'은 모두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부사어를 사용하였다.
- ⑤ ㉡의 '준우'는 긍정을 나타내는 독립어를, ㉢의 '도희'는 부정을 나타내는 독립어를 사용하였다.

25004-0059

<보기>의 ㉠,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중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에서 연결 어미에 따라 두 절이 의미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 뒤 절의 내용에 대해 앞 절의 내용이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 ㉡ 뒤 절의 내용에 대해 앞 절의 내용이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	㉡
①	비가 오더라도 내일 행사는 진행합니다.	식사를 마치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②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졸음이 쏟아지기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③	늦장을 부려서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시험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④	맛집을 가야 사람들이 만족할 겁니다.	우리는 책을 읽고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⑤	여름이 되면 언제나 장마가 찾아옵니다.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자 찾아보았습니다.

25004-0060

〈 보 기 〉

- 주전자가 ㉠ 뚜껑이 없다.
- ㉡내가 기다리던 신제품이 출시되었다.

- ① 내가 하려던 일은 이런 일이 아니다.
- ② 우리 학교의 운동장이 진흙탕이 되었다.
- ③ 삼촌이 사 주신 가방이 지퍼가 망가졌다.
- ④ 아주 오랫동안 저 집이 창문이 열려 있었다.
- ⑤ 언니가 일으킨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25004-0061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문장 종결 표현은 화자가 종결 어미를 통해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문장 종결 표현의 유형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서로 다른 문장 종결 표현인데 같은 형태의 종결 어미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종결 어미 '-아/-어'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에 두루 쓰인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문장 끝의 억양이 달라짐에 따라 종결 표현을 구별할 수 있다.

아들: ㉠엄마, 저 심부름 다녀왔어요. ㉡어휴, 더워라.
 엄마: ㉢밖에 아직 많이 더워? 고생했다. (차를 내주며) ㉣시원한 매실차 좀 마셔라.
 아들: ㉤네, 정말 더워요. (차를 마시고) 맛있네요! ㉥엄마가 만드셨어요?
 엄마: ㉦아니, 사 왔어. ㉧이제 같이 저녁 먹자꾸나.

- ① ㉠과 ㉡은 종결 어미 '-어요'를 사용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군.
- ② ㉢과 ㉣은 종결 어미 '-어라'를 사용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군.
- ③ ㉢과 ㉤은 종결 어미의 형태는 같지만 문장 끝의 억양으로써 종결 표현을 구별할 수 있겠군.
- ④ ㉣과 ㉥은 서로 다른 형태의 종결 어미에 의해 서로 다른 유형의 문장 종결 표현이 나타났군.
- ⑤ ㉤과 ㉥은 종결 어미의 형태는 같지만 화자가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는지의 여부에 차이가 있군.

25004-0062

<보기>의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피동문과 이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비교해 보면, 문장 성분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와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를 비교해 보면, 피동문에 있던 주어, 부사어가 능동문에서는 각각 목적어와 주어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 피동문의 주어와 부사어로 이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만들었을 때 의미상 어색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 ① 해안 도시가 태풍에 휩쓸렸다.
- ② 종이비행기가 나뭇가지에 걸렸다.
- ③ 이 제품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 ④ 우리 반 주자가 바로 뒤의 주자에게 따라잡혔다.
- ⑤ 그 일이 우리 식구 모두에게 추억으로 기억되었다.

25004-006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서진: 소연아, 수학책에서 이 문제 풀었어?
 소연: ㉠이거?
 서진: 아니, 3번 말고 2번 문제.
 소연: 응, ㉡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풀어 주셨어.
 서진: 그랬구나. ㉢내가 그날 대회에 나갔다 와서 몰랐어.
 소연: 그럼 ㉣너 ㉢그것도 모르겠네. 문제 하나씩 만들어서 제출해야 해.
 서진: 알려 줘서 고마워. ㉤그거는 언제까지 해야 해?
 소연: ㉥모레까지야. 참, 선생님이 학급 누리집 게시판에 예시 문제 올려 주셨어. 참고하면 돼.
 서진: 와, ㉦그것도 몰랐어. 정말 고마워!

- ① ㉠과 ㉢은 대화 상황에서 화자가 볼 수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 ② ㉠과 ㉢은 앞에서 언급이 되었던 특정한 내용을 가리킨다.
- ③ ㉡과 ㉣은 화자가 말하고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한 특정일을 가리킨다.
- ④ ㉡과 ㉢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 ⑤ ㉤과 ㉥은 화자가 뒤에 새롭게 언급할 정보를 가리킨다.

25004-0064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학습 활동 > —

문장 종결 표현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문장 종결 표현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문장 종결 표현의 유형과 화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다음 자료에 나타난 발화의 특성을 탐구해 보자.

[자료]
 (강당에서 진로 특강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자: 오늘 진로 특강을 해 주실 강연자 선생님을
 ㉠ 모셔 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연자: 안녕하세요. 진로 특강을 맡은 직업 상담사
 ○○○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
 나요?

<중략>

사회자: 좋은 강연을 해 주신 선생님께 큰 박수로 화
 ㉡ 답해 주시겠어요? (청중이 박수를 친다.) 감사
 합니다. 선생님, 시간이 좀 있는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강연자: 질문을 안 받는 강연자가 있을까요? 아주 좋
 습니다.
 사회자: 네, 그럼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
 십시오.

- ① ㉠에서 '사회자'는 평서문을 사용하여 청중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청했습니다.
- ② ㉠에서 '강연자'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청중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 ③ ㉡에서 '사회자'는 명령문을 사용하여 청중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청했습니다.
- ④ ㉡에서 '사회자'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강연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제안했습니다.
- ⑤ ㉡에서 '강연자'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사회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25004-006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금요일 오후 동아리 임원들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

유정: 동아리 신입 부원 환영회를 해야 하는데, 언제 어디에서 하면 좋을
 을까?
 승아: 나는 이번 주말만 아니면 다 좋아. 주말에 ㉠우리 가족이 속초로
 여행을 가서.
 예원: 우아, ㉡거기는 닭강정이 유명한데.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와. 다
 음 주 금요일은 어때?
 승아: 좋아. 작년엔 갔던 ㉢그 식당에서 모이자고 할까?
 유정: 학교 앞 닭갈비 가게 말하는 거지? 어제 보니까 ㉣거기 확장 공
 사 중이던데.
 승아: 이런, 그러면 ㉤그날까지 안 끝날 수도 있겠네. 새로 생긴 즉석
 떡볶이 가게는 어때?
 예원: (스마트폰으로 지도 앱을 켜서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연
 기 말하는 거지?
 승아: 맞아. 사전 답사로 ㉦우리 셋이 오늘 한번 가 볼까?
 유정: 좋지. (스마트폰으로 채팅 앱을 확인하며) 연경이가 ㉧자기도 같
 이 가고 싶다고 하네.
 예원: 나는 일이 있어서, 너희 셋이 다녀와야겠다.

- ① ㉠에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② ㉡과 ㉢은 형태가 다르지만 동일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
- ③ ㉢과 ㉤은 가리키는 장소가 상이하다.
- ④ ㉤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를 가리킨다.
- ⑤ ㉥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된다.

25004-0066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난 내일 수업이 있어.”라는 문장은, 가령 ‘나’가 ‘교사’인지 ‘학생’인지의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문장 의미에다가 맥락으로부터 보충된 의미를 합하여 ‘말해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난 내일 수업이 있어.”라는 을의 발화가 “내일 영화 볼래?”라는 갑의 발화에 대한 대답이라면 어떤 의미를 나타내게 될까? 을의 발화에 함축된 의미를 추론해 보자면 ‘나는 내일 영화를 보지 못한다.’ 정도가 될 것이다. 이처럼 ‘말해진 것’에 더해 발화에 의해 전달되는 추가적 의미를 ‘함축 의미’라고 한다. 함축 의미는 추가되는 발화 등에 기인한 맥락의 변화에 따라 취소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선 대화에서 을이 “하지만 네가 말하니까 수업 빠질게.”라고 덧붙인다면 기존의 함축 의미는 취소되며, “절대 못 빠지는 수업이야.”라고 덧붙인다면 함축 의미가 강화 된다.

〈 보기 〉

(방과 후, 교실 앞에서 동급생인 연수와 태훈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

연수: 태훈아, 내일 프로야구 개막전 보러 갈래?
 태훈: 재미있겠다. ㉠그런데 나 내일 선약이 있어.
 연수: 아쉽다. 용찬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용찬이는 벌써 집에 갔나?
 태훈: 음……. ㉡용찬이 가방은 교실에 있던데.
 연수: 방과 후 수업에 갔나 보다.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연락해 봐야지.
 태훈: ㉢나도 선약을 한번 조정해 볼게. ㉣나 야구 정말 좋아하거든.
 연수: 그래. ㉤표가 여러 장 있어. 셋이 같이 가면 좋겠다.

- ① ㉠: 내일 프로야구 개막전을 보러 가지 못한다는 함축 의미를 전달한다.
- ② ㉡: '용찬'이 아직 집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함축 의미를 전달한다.
- ③ ㉢: 앞서 '연수'의 제안을 거절했던 함축 의미를 취소한다.
- ④ ㉣: 프로야구 개막전을 보러 가고 싶다는 함축 의미를 강화한다.
- ⑤ ㉤: '용찬' 대신 '태훈'과 야구를 보고 싶다는 함축 의미를 강화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담화가 짜임새 있게 구성되기 위해서는 담화의 형식적 요건인 응집성을 갖추어야 한다.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앞 문장에 나온 요소를 뒤 문장에서 의미적으로 등가인 요소로 다시 언급하는 '재수용'이라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어느 공주님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사과를 좋아했습니다.'에서 '그녀'는 앞에서 나온 '공주님'을 '재수용'한 것이다. 재수용은 대명사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고유 명사나 보통 명사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 등 단어의 의미 관계를 활용하여 재수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재수용'에는 재수용 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명시적 재수용'과 재수용 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 '함축적 재수용'이 있다. 예를 들어 '현우는 아내를 자전거에 태웠다. 아내는 예전에도 남편이 모는 자전거에 타 본 적이 있었다.'와 같은 담화에서 '현우'와 '남편'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으나, '현우'가 '남편'이라는 추론 덕택에 이 두 문장은 결속될 수 있다. 이처럼 '함축적 재수용'의 경우에는 지시 대상이 동일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추론을 통해 결속이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접속 표현을 활용하면 담화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의 행동에는 잘못된 점이 많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와 같은 문장에서 '그러나'와 같은 접속표현은 앞뒤 문장의 관계를 분명히 보여 주면서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25004-006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토요일 아침, 30분 후에 우리 집에 도착한다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그것은 당황스럽기보다는 기쁜 일이었다. 왜냐하면 나의 벗이 허물없이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 도로 한편에 버스가 줄지어 서 있었다. 하지만 차 안은 텅텅 비어 있었다.

- ① ㉠에서 '그것'은 대명사를 활용하여 '30분 후'를 재수용한 사례로 볼 수 있겠군.
- ② ㉠의 '벗'은 단어의 유의 관계를 활용하여 '친구'를 재수용한 사례로 볼 수 있겠군.
- ③ ㉠에서는 '왜냐하면'과 같은 접속 표현을 활용하여 해당 문장이 앞 문장의 이유임을 보여 주는군.
- ④ ㉡의 '차'는 단어의 상하 관계를 활용하여 '버스'를 재수용한 사례로 볼 수 있겠군.
- ⑤ ㉡에서는 '하지만'과 같은 접속 표현을 활용하여 앞 문장과 뒤 문장에 담긴 상황이 상반됨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군.

25004-0068

㉠이 일어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식탁에는 떡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인절미를 얼른 먹었다.
- ② 지난달에 박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다. 그분의 부고에 내 마음은 공허해졌다.
- ③ 원래 왕세자는 양녕 대군이었다. 그러나 그는 세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였다.
- ④ 흑한의 땅, 이곳의 추위는 유독 길다. 우리가 거주하는 몽골 북부는 11월부터 3월까지 혹독한 겨울이 이어진다.
- ⑤ 한복은 우리 고유의 의복으로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룬다. 한복은 화려하면서도 단아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의상이다.

25004-0069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 ㉡에 들어갈 형태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기 〉

중세 국어에서 화자가 상위자의 동작이나 상태를 높이거나 할 때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오)시-/(으/오)샤-'를 사용하였다. '-(으/오)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사용되었고, '-(으/오)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때 '-(으/오)샤-'에 후속하는 첫 모음은 탈락되었다.

- 狄人스 서리에 가 - + - 샤 - + - 아 → 狄人스 서리에 ㉠ (적인의 사이에 가지어)
- 마리톨깁- + ㉡ + -고 → 마리톨깁기시고(머리를 꺾으시고)

- ㉠ ㉡
- ① 가시아 -으시-
- ② 가샤아 -으샤-
- ③ 가샤아 -으시-
- ④ 가샤 -으샤-
- ⑤ 가샤 -으시-

25004-0070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중세 국어의 명사형 어미 '-음/음'은 명사 파생 접미사인 '-(으/으)ㅁ'과 구별되었습니다. 다음 자료의 밑줄 친 부분에 명사형 어미가 사용되었는지 명사 파생 접미사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료]

- ㉠ 쁘디 아로미 어려보니라(뜻이 알기가 어려우니라)
- ㉡ 그림 그리기에 늘구미 將 次 오몰아디 묻흐느니(그림 그리기에 늡음이 장차 음을 알지못하나니)
- ㉢ 蓮 사고지 고즈로서 여름 여루미 곧홀씨(연꽃이 꽃으로서 열매 얹과 같기 때문에)

학생: [A]

- ① ㉠의 '아로미'는 어간 '알-'에 명사형 어미 '- 음'이 결합한 것입니다.
- ② ㉡의 '그림'은 어근 '그리-'에 명사 파생 접미사 '-ㅁ'이 결합한 것입니다.
- ③ ㉢의 '늘구미'는 어근 '늡-'에 명사 파생 접미사 '- 음'이 결합한 것입니다.
- ④ ㉢의 '여름'은 어근 '열-'에 명사 파생 접미사 '- 음'이 결합한 것입니다.
- ⑤ ㉢의 '여름'은 어간 '열-'에 명사형 어미 '- 음'이 결합한 것입니다.

25004-0071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 친 중세 국어의 합성 용언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중세 국어의 합성 동사들은 '동사의 어간 + 동사의 어간', '동사의 활용형 + 동사의 어간', '명사+ 동사의 어간'의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중세 국어의 합성 형용사의 경우에는 '형용사의 활용형 + 형용사의 어간'과 같은 구조를 갖는 경우는 드물었고, '형용사의 어간 + 형용사의 어간', '명사 + 형용사의 어간'의 구조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 이 기비 물드로매 特別히 마졸시(이 비단이 물뜸에 특별히 맞으므로)
- ㉡ 墓에 가실제 부테 앞서시니(묘에 가실 제 부처께서 앞서시니)
- ㉢ 혹 검블그며 혹 거므며(혹 검붉으며 혹 검으며)
- ㉣ 비치 六舍에 숫나며(빛이 육합에 숫아나며)
- ㉤ 이 양으로 세 번 오르느리샤(이 모습으로 세 번 오르내리시어)

- ① ㉠의 '물들다'는 명사 '물'과 동사의 어간 '들-'의 결합으로 분석할 수 있겠구나.
- ② ㉡의 '앞서다'는 명사 '앞'과 동사의 어간 '셔-'의 결합으로 분석할 수 있겠구나.
- ③ ㉢의 '검붉다'는 형용사의 어간 '검-'과 형용사의 어간 '붉-'의 결합으로 분석할 수 있겠구나.
- ④ ㉣의 '숫나다'는 동사의 어간 '숫-'과 동사의 어간 '나-'의 결합으로 분석할 수 있겠구나.
- ⑤ ㉤의 '오르느리다'는 형용사의 활용형 '오르-'와 형용사의 어간 '느리-'의 결합으로 분석할 수 있겠구나.

25004-007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국어의 변화 양상을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세 국어]

훈 菩薩이 王 드외야 겨샤 나라홀아스맛 디치고 道理 비호라 나 아가샤 瞿曇婆羅門을 맛나샤 즈갓 오스란 밧고 瞿曇이오슬 니브샤 深山에 드러 果實와 물와 좌시고 坐禪호시다가 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니 다 몰라보습더니 小瞿曇이라 호더니

[현대 국어]

한 보살이 왕이 되어 계시어 나라를 아우(에게) 맡기시고 도리(를) 배우러 나가지어, 구담바라문을 만나지어, 자기 옷은 벗고, 구담의 옷을 입으시어, 깊은 산에 들어, 과실과 물(을)자시고, 좌선하시다가 나라에 얻어먹으러 오시니 (나라 사람이) 다 몰라보더니, (그분을)'소구담'이라 하더라.

	중세 국어	변화 내용
①	아스	'ㅅ'이 소실되면서 단어의 형태가 바뀌었다.
②	나아가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형태가 '- 샤'로 실현되지 않게 되었다.
③	니브샤	어두의 'ㄴ'이 탈락하는 두음 법칙이 일어나게 되었다.
④	果實와 물와	접속하는 마지막 체언 뒤에 접속 조사 '과'를 사용하게 되었다.
⑤	몰라보습더니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25004-0073

<보기>의 ㉠~㉤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시름드윈 ㉠ 누네 서리와 이슬를 보노니 치운 城(성)에 菊花(국화)ㅣ 절로 프눗다하눗 ㉡ 브르문 것거딘 버드를 좇느니 내 늡므른 물곤 뜻뎡 소리에 들이노라프리 ㉢ 조흐니 樓(누)ㅅ 그르메 바르뎡고 궤히 어드우니 ㅁ잇 히 기우도다 ㉣ 바민 ㉤ 자리에 갈 새 다하거늘 後(후)에 깃 기슬 가마괴 우눗다

[현대어 풀이]

걱정스러운 눈에 서리와 이슬을 보니, 추운 성(城)에 국화가 절로 피는구나. 하늘의 바람은 꺾어진 버들을 좇으니, 내 눈물은 맑은 풀피리의 소리에 떨어지도다. 물이 깨끗하니 누각의 그림자 바로 져 있고, 산이 어두우니 산기슭의 해 기울도다. 밤에 자리에 갈 새 다하거늘, 후(後)에 둥지(에) 들 까마귀 우는구나.

- ① ㉠: 체언과 조사가 결합한 것을 적을 때, 이어 적기 방식이 사용되었다.
- ② ㉡: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
- ③ ㉢: '중-'의 경우 현대 국어와 달리 '깨끗하-'의 의미를 지녔다.
- ④ ㉣: 시간을 나타내는 체언 '밤'에는 관형격 조사 '이'가 결합하였다.
- ⑤ ㉤: 모음 'ㅣ'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가 나타났다.

25004-0074

<보기>를 바탕으로 단어의 형태 변화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음 ‘·’는 16세기 이후 ㉠비어두 음절에서 주로 ‘ㅡ’로 변하는 제1단계 소실, 18세기 이후 ㉡어 두 음절에서 주로 ‘ㅏ’로 변하는 제2단계 소실을 거쳐 국어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한편 근대 국어 시기에는 양순음 ‘ㅁ, ㅂ, ㅍ, ㅃ’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ㅓ’로 변하였는데 이를 ㉢원순 모음화라고 한다.

- ① ‘말씀’이 ‘말씀’으로 형태가 변하는 데에는 ㉠이 작용하였겠군.
- ② ‘팔’이 ‘팔’로 형태가 변하는 데에는 ㉡이 작용하였겠군.
- ③ ‘나무’가 ‘나무’로 형태가 변하는 데에는 ㉢이 작용하였겠군.
- ④ ‘늬물’이 ‘나물’로 형태가 변하는 데에는 ㉠, ㉡, ㉢이 모두 작용하였겠군.
- ⑤ ‘ㅎ물머’가 ‘하물머’로 형태가 변하는 데에는 ㉠, ㉡, ㉢이 모두 작용하였겠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즐겁다’와 ‘기쁘다’는 흡족한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유의 관계라고 하고,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유의어라고 한다.

유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지역 간 방언의 차이로 인하여 유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중부 방언에서는 ‘부추’라고 부르는 식물을 경상도 방언에서는 ‘정구지’, 전라도 방언에서는 ‘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때 ‘부추’, ‘정구지’, ‘솔’은 유의어가 된다. 다음으로 격식에서 느껴지는 차이로 인해 유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말은 어종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되는데,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 격식적으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치아’가 ‘이’보다 좀 더 점잖은 말로 인식되어 사용되며 유의 관계가 나타난다. 또 일상어에 대응하는 전문어가 존재하여 유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화학 원소 중 하나인 나트륨은 일상생활에서 소금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엄밀히 따져 보면, 전문어로서의 나트륨은 소금의 주요 구성 성분이지 소금 자체는 아니다. 하지만 나트륨이 일상적으로는 소금으로 이해됨으로써 ‘소금’과 ‘나트륨’의 유의 관계가 나타난다. 그리고 동일한 지시 대상을 가리키지만, 각 단어에 내포된 의미의 차이로 인하여 유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대답’과 ‘대꾸’는 어떠한 말에 응하여 말을 한다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꾸’는 대답과 달리 남이 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대답’의 의미와는 차이가 나 유의 관계가 나타난다. 직접 언급하기를 꺼려 이를 대신하는 표현이 만들어짐으로써 유의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죽다’ 대신에 ‘돌아가다’를 사용하여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완곡어법에 따라 유의어가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의 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들은 의미가 유사할 뿐이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따라서 유의어들 간의 의미 차이 및 용법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검증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다. 먼저 문장에서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 보는 교체 검증이 있다. 예를 들어, ‘물이 깨끗하다.’, ‘옷이 깨끗하다.’의 ‘깨끗하다’를 ‘맑다’로 교체해 봄으로써 ‘깨끗하다’와 ‘맑다’ 간 의미를 비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의어에 반의어를 대응시켜 보는 반의 검증이 있다. 유의어 간의 반의어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유의어 간의 의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울, 시내, 하천, 강’ 등과 같이 하나의 계열로 유의어를 배열하여 정도성의 차이를 알아보는 배열 검증이 있다. 이를 통해서도 유의어 간 의미 차이를 파악해 볼 수 있다.

25004-007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종이 다른 국어 단어끼리 유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군.
- ② 반의어를 활용하여 유의어 간 의미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군.
- ③ 교체 검증을 통해서 ‘대답’과 ‘대꾸’ 간의 의미 차이를 파악할 수 있겠군.
- ④ 배열 검증을 통해서 ‘밭장다’, ‘빨장다’, ‘새빨장다’ 간의 의미 차이를 파악할 수 있겠군.
- ⑤ 전문어와 일상어가 유의 관계를 이룰 때, 일상어는 전문어보다 가리키는 범위가 좁겠군.

25004-007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 ‘과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먹는 것이지만, 어린아이에게 ‘과자’ 대신 ‘까까’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 인간과 친숙한 동물인 ‘고양이’를 부르는 말은 ‘고양이, 궤이’ 등 우리나라 각 지역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 범죄인을 수용하는 시설의 명칭을 ‘형무소’에서 ‘교도소’로 변경하여, 바로잡아 인도한다는 의미를 반영하였다.
 - 독일식 발음인 ‘메탄’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화학 물질의 이름이 영어식 발음인 ‘메테인’으로 바뀌었다.
 - ‘국’과 ‘찌개’는 모두 재료를 물에 끓여서 내는 음식이지만, 국물과 건더기의 비율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① ‘과자’와 ‘까까’는 지역 방언의 측면에서 유의 관계가 나타난다.
- ② ‘고양이’, ‘고양이’, ‘궤이’는 격식적인 측면에서 유의 관계가 나타난다.
- ③ ‘형무소’와 ‘교도소’는 내포하는 의미 차이 측면에서 유의 관계가 나타난다.
- ④ ‘메탄’과 ‘메테인’은 발음을 달리한 완곡어법의 측면에서 유의 관계가 나타난다.
- ⑤ ‘국’과 ‘찌개’는 일상과 전문 분야에서의 용법 차이 측면에서 유의 관계가 나타난다.

25004-0077

<보기>의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선생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음운 변동을 한글 맞춤법에 반영하는 경우와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 사례가 쓰인 문장과 그 문장을 올바르게 고친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의 사례가 어떠한 음운 변동과 관련되어 있는지 제시하고, 해당 음운 변동을 한글 맞춤법 표기에 반영해야 하는지 판단해 보세요.

- ㉠ 건물이 텅 비었다. → 건물이 텅 비었다.
- ㉡ 칼국수를 잔뜩 끝였다. → 칼국수를 잔뜩 끊었다.
- ㉢ 오늘은 장을 보러 가았다. → 오늘은 장을 보러 갔다.
- ㉣ 그는 구지 길을 빙 돌아서 갔다.
→ 그는 굳이 길을 빙 돌아서 갔다.
- ㉤ 그 사람의 망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 그 사람의 막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 ① ㉠: 반모음 첨가와 관련되며, 반모음 첨가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② ㉡: 자음군 단순화와 관련되며, 자음군 단순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③ ㉢: 동일 모음 탈락과 관련되며, 동일 모음 탈락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④ ㉣: 구개음화와 관련되며, 구개음화는 표기에 반영합니다.
- ⑤ ㉤: 비음화와 관련되며, 비음화는 표기에 반영합니다.

25004-0078

<보기>의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둘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 ㉡ 내 친구들도 아직 출발하지 않고 있었다.
- ㉢ 색깔이 서로 다른 꽃을 심지 않았던 모양이다.

- ① ㉠과 달리 ㉡에는 관형어가 사용되었다.
- ② ㉠에는 '다르다'의 명사형이, ㉢에는 '다르다'의 관형사형이 사용되었다.
- ③ ㉠과 ㉢의 '서로'는 모두 안긴절에서 사용되었다.
- ④ ㉡과 ㉢의 부사어는 부사로만 이루어져 있다.
- ⑤ ㉠, ㉡, ㉢에는 각각 두 개의 보조 용언이 사용되었다.

25004-0079

<보기>를 참고하여,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훈민정음』에서는 자음을 조음 위치에 따라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으로 구별하였고, 조음 방법에 따라서는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으로 구별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이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전청	ㄱ	ㄷ	ㄴ	ㅅ, ㅆ	ㅇ
차청	ㅋ	ㅌ	ㅍ	ㅊ	ㅎ
전탁	ㆁ	ㆁ	ㅁ	ㅃ, ㅅ	ㆁ
불청불탁	ㅇ	ㄴ	ㅇ		ㅇ

위의 표에서 'ㄱ'과 'ㅅ'이 빠져 있는데, 조음 위치 면에서 'ㄱ'은 반설음, 'ㅅ'은 반치음으로 분류하였고, 조음 방법 면에서는 모두 불청불탁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종성과 관련해서 'ㄱ, ㅇ, ㄷ, ㄴ, ㅂ, ㅁ, ㅅ, ㄴ'의 여덟 글자만으로 종성을 적는 데 충분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종류가 여덟 가지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현대 국어로 오면서 자음자가 나타내는 자음의 발음이 달라진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훈민정음』의 자음 분류 방식은 이후 자음자의 배열 순서에 영향을 주었다.

[자료] 한글 맞춤법 제4항 일부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네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음)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ㆁ(타을)	ㅍ(피읖)	ㅎ(히읇)	

- ① [자료]의 'ㅅ'부터 'ㅎ'까지의 자음자를 『훈민정음』에 비추어 분석해 보면,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ㅅ'만 조음 위치가 다른 자음을 나타내던 자음자임을 알 수 있다.
- ② [자료]의 'ㅊ', 'ㅋ', 'ㆁ', 'ㅍ', 'ㅎ'을 『훈민정음』에 비추어 분석해 보면,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모두 조음 방법이 같았던 자음을 나타내던 자음자들임을 알 수 있다.
- ③ [자료]의 'ㄱ'부터 'ㅇ'까지의 자음자를 『훈민정음』에 비추어 분석해 보면,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모두 종성을 적는 데 사용되었던 자음자들임을 알 수 있다.
- ④ [자료]의 'ㄴ', 'ㄷ', 'ㄹ'을 『훈민정음』에 비추어 분석해 보면,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모두 설음으로 분류된 자음을 나타내던 자음자들이며, 획이 적은 것부터 배열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자료]의 'ㅅ'부터 'ㅎ'까지의 자음자를 『훈민정음』에 비추어 분석해 보면,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을 나타내는 순서로 배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ㄴ’이 유음인 ‘ㄹ’의 앞 또는 뒤에서 ‘ㄹ’로 바뀌는 현상을 유음화라 하는데, 전자는 ‘ㄴ + ㄹ’이 ‘ㄹㄹ’로 바뀌는 역행적 유음화이고, 후자는 ‘ㄹ + ㄴ’이 ‘ㄹㄹ’로 바뀌는 순행적 유음화이다. 순행적 유음화는 복합어는 물론이고 ㉠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적용되는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되는 음운 현상이다. 그런데 ㉡ ‘ㄹ’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와도 순행적 유음화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령 ‘아는(알 - + - 는)’, ‘우느냐(울 - + - 느냐)’ 등과 같이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는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항상 ‘ㄹ’이 탈락한다. 또한 ‘소나무(술 + 나무)’, ‘따님(딸 + - 님)’과 같은 ㉢ 복합어에서도 순행적 유음화 대신 ‘ㄹ’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날 환경에서 그 대신 ‘ㄹ’ 탈락이 일어나는 것은 ‘ㄹ’ 탈락과 역사적 발생 순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ㄹ’ 탈락은 이미 15세기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ㄴ, ㄷ, ㅅ, ㅈ’ 앞에서 ‘ㄹ’ 탈락이 일어났다. ‘아는(알 - + - 는)’, ‘우느냐(울 - + - 느냐)’ 등 용언 활용형에서 ‘ㄹ’ 탈락이 적용된 예를 여럿 확인할 수 있으며, ‘쓰님(쓸 + - 님)’과 ‘쫄님’처럼 복합어에서는 ‘ㄹ’ 탈락이 적용된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공존하였다. ‘열라문(열나문 > 여남은)’, ‘열릴구베(열닐굽에 > 열일굽에)’ 등 순행적 유음화가 등장하는 것은 16세기 들어서의 일이다.

그런데 ‘ㄹ’ 탈락이 적용되었다고 해서 ‘ㄹ + ㄴ’ 연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ㄹ’로 끝나는 형태소와 ‘ㄴ’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결합하는 합성어는 물론이고, ‘꺾-(> 꺾- > 꺾 -)’, ‘슬-(> 슬퍼하 -)’ 등과 같이 ‘ㄹ’로 끝나는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15세기에 이미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슬노라(슬 - + - 는 - + - 오 - + - 라)’와 같이 실현되었다. 이 ‘ㄹ + ㄴ’ 연쇄는 이후에 순행적 유음화의 적용을 받아서 ‘슬로라’와 같이 ‘ㄹㄹ’로 바뀌었다.

즉 ‘아는, 우느냐’ 등과 같은 용언 활용형 및 ‘소나무, 따님’ 등과 같은 복합어에서 순행적 유음화가 적용되지 않고 ‘ㄹ’ 탈락이 적용되는 것은, ㉣ 순행적 유음화가 생기기 이전에 ‘ㄹ’ 탈락이 적용된 형태가 그대로 이어진 결과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단어들은 이미 ‘ㄹ’이 탈락하여 ‘ㄹ + ㄴ’ 연쇄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순행적 유음화가 새로 생겨나도 적용을 받을 수가 없었다. 반면 ‘ㄹ’로 시작하는 접받침 용언 어간은 ‘ㄹ’ 탈락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에, 이후 순행적 유음화가 적용될 수 있었다. 그래서 ㉤ 용언 활용형에서의 순행적 유음화는 ‘ㄹ’로 끝나는 어간 대신 ‘ㄹ’로 시작하는 접받침을 가진 어간 뒤에서만 나타난다.

25004-0080

윗글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 해당하는 예로 ‘잘 넘는다’를 [잘럼는다]로 발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② ㉡에 해당하는 예로 ‘갈 - + - 니 → 가니’를 들 수 있다.
- ③ ㉢에 해당하는 예로 ‘버드나무(버들 + 나무)’를 들 수 있다.
- ④ ㉣에 해당하는 예로 ‘쌀눈’을 들 수 있다.
- ⑤ ㉤에 해당하는 예로 ‘달는[달른]’을 들 수 있다.

25004-0081

윗글을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世尊 오샤물아습고(세존 오심을 알고)
- ㉡ 버드리 虛空에 들인(별달이 허공에 달린)
- ㉢ 氣運이 실낱 길도다(기운이 실낱 같도다)
- ㉣ 철리에 가 의원 언더니(천리에 가 의원 언더니)
- ㉤ 썰는 프레 돛가 머기라(끓는 물에 담가 먹이라)

- ① ㉠을 보니, 15세기에는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용언 어간의 ‘ㄹ’ 탈락이 일어났군.
- ② ㉡를 보니, 15세기에는 ‘ㄷ’으로 시작하는 어근 앞에서 체언 어근의 ‘ㄹ’ 탈락이 일어났군.
- ③ ㉢를 보니, 15세기에는 ‘ㄴ’ 앞에서 ‘ㄹ’이 그대로 놓일 수 있었군.
- ④ ㉣를 보니, 16세기에는 ‘ㄹ’과 인접한 ‘ㄴ’에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났군.
- ⑤ ㉤를 보니, 16세기에는 ‘ㄹ’로 끝나는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ㅎ’이 탈락하여 ‘ㄹ’과 ‘ㄴ’이 인접할 수 있었군.

25004-0082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문장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조 건 >

- 안은문장의 서술어의 자릿수가 둘일 것.
- 관형어로 기능하는 안긴절이 들어 있을 것.

< 보 기 >

- ㉠ 우리도 사람이 더 많아지기 전에 이곳을 나가자.
- ㉡ 이 지역의 토양은 벼농사를 짓기에 매우 적합하다.
- ㉢ 여럿이서 열심히 노력해 왔던 일이 물거품이 되었다.
- ㉣ 우리는 코앞으로 닥쳐온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5004-008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을 주동(主動)이라 하고,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동작을 사동(使動)이라 한다. 사동문은 사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서술어의 형태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국어의 사동문에는 ㉠ 주동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 '- 이 -', '- 히 -', '- 리 -', '- 기 -', '- 우 -', '- 구 -', '- 추 -'를 결합한 사동사 서술어를 갖는 사동문, ㉡ 접사 '- 하 -'를 '- 시 키 -'로 교체한 서술어를 갖는 사동문, ㉢ 주동문의 용언 어간에 '- 게 하다'를 결합시켜 만든 사동문 등이 있다. 그런데 ㉣ 사동문은 그 뜻이 중의적인 경우가 많다. 가령 '형이 동생에게 밥을 먹였다.'와 같이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은 맥락에 따라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반면 '누나가 동생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처럼 '- 게 하다' 사동문은 간접 사동의 뜻으로만 해석된다. 한편 ㉤ 사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주로 사동사가 비유적 표현이나 관용구 속에서 사용되는 경우인데, 가령 '잠깐 눈을 붙이다.'는 그에 대응하는 '눈이 붙다'와 같은 주동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① ㉠: 의사가 어머니 품에 아기를 안겼다.
- ② ㉡: 코치는 선수들을 끊임없이 연습시켰다.
- ③ ㉢: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집에 가게 하셨다.
- ④ ㉣: 아내는 남편에게 영양제를 매일 먹게 했다.
- ⑤ ㉤: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그 사실을 끝까지 숨기셨다.

25004-008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단어는 의미적으로 다른 단어와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것을 의미 관계라고 한다. 의미 관계에는 말소리는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 관계인 '유의 관계', 의미상 서로 짝을 이루어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의미 관계인 '반의 관계',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인 '상하 관계' 등이 있다. 그런데 복합어를 이룰 때 복합어의 구성 요소가 서로 의미 관계를 맺으며 결합하기도 한다. '또다시'처럼 ㉠ 구성 요소가 유의 관계를 이루는 경우, '잘잘못'처럼 ㉡ 구성 요소가 반의 관계를 이루는 경우, '겨울철'처럼 ㉢ 구성 요소가 상하관계를 이루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① ㉠: 곧바로 ② ㉠: 굶주리다 ③ ㉡: 여단다
- ④ ㉡: 위아래 ⑤ ㉢: 칼날

25004-0085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생: 선생님, 'ㅎ'이 들어간 겹받침을 발음할 때 뒤에 어떤 소리가 오느냐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않아'는 [아나]로, '않는'은 [안는]으로, '않고'는 [안코]로 발음이 되는 데요, 발음의 원리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좋은 질문입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음운 변동에 대해 학습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학습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학습 자료]

- ㄹ'ㅎ' 탈락: 용언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 자음군 단순화: 음절 끝에 자음이 두 개 놓일 때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그중 하나를 탈락시키고 하나만 발음하는 현상
- 거센소리되기: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쳐져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현상

학생:

선생님: 네, 잘 이해했습니다.

- ① '않아'와 '않는'을 발음할 때 모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군요.
- ② '않아'를 발음할 때에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않고'를 발음할 때에는 'ㅎ' 탈락이 일어나는군요.
- ③ '않아'를 발음할 때에는 'ㅎ' 탈락이 일어나고, '않는'을 발음할 때에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군요.
- ④ '않아'를 발음할 때에는 'ㅎ' 탈락이 일어나고, '않는'을 발음할 때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군요.
- ⑤ '않고'를 발음할 때에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않는'을 발음할 때에는 'ㅎ' 탈락이 일어나는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파생 접사와 어미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생 접사와 어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분명하게 구별된다.

첫째, 파생 접사는 어근에 결합하여 어근과는 다른 새로운 단어를 만들며, 어미는 단어의 형성에는 기여하지 않지만 어간에 결합하여 다양한 활용형을 만든다. 이를테면 파생 접사 '헛 -, -이, -보'는 어근 '먹 -'에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 '헛먹 -, 먹이, 먹보'를 만들며, 어미에 해당하는 '-고, -는, -자'는 어간 '먹 -'에 결합하여 활용형 '먹고, 먹는, 먹자'를 만든다.

둘째, 파생 접사는 상대적으로 결합하는 어근에 제약이 크지만 어미는 결합하는 어간의 제약이 거의 없다. 곧 파생 접사는 상대적으로 분포가 좁고 어미는 분포가 넓다. 예를 들어 부사 파생 접사 '-이'는 '높다, 깊다, 길다'에는 결합하고 '낮다, 얕다, 짧다'에는 결합하지 못하지만, 어미 '-게'는 '높게, 깊게, 길게, 낮게, 얕게, 짧게'와 같이 모든 어간에 결합한다.

셋째, ㉠ 파생 접사는 어근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결합하기도 하지만 어미는 어간의 의미와 상관없이 일정한 의미(혹은 기능)를 유지하며 결합한다. 파생 접사 '-이'의 결합형 '젓먹이, 손톱깎이, 턱걸이'는 어근의 의미 차이 이외에도 각각 사람, 사물, 일을 뜻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어미 '-고'의 결합형 '먹고, 깎고, 걸고'가 어간의 의미 차이 이외의 별다른 의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다.

넷째, 파생 접사와 어미가 모두 나타날 때에는 파생 접사가 어미에 선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어른스럽고'에서 파생 접사 '-스럽 -'은 어미 '-고'에 선행한다. 이는 명사 어근 '어른'에 파생 접사 '-스럽 -'이 결합하여 형용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어른스럽 -'이 어간의 자격을 가지고 어미 '-고'와 결합한다는 것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헛디디고'는 파생 접사 '헛 -'이 '디디 -'에 결합하여 만들어진 '헛디디 -'에 어미 '-고'가 결합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위대했던 과거의 정신을 되살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 ① '위대했던'에는 1개의 파생 접사와 2개의 어미가 포함되어 있다.
- ② '되살려'의 '되 -'는 어근에 결합하여 어근과 다른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반면 '-어'는 그렇지 않다.
- ③ '슬기롭게'의 '-롭 -'은 결합하는 어근에 제약이 있지만, '-게'는 대부분의 어간에 결합할 수 있다.
- ④ '극복해야'의 파생 접사 '-하 -'는 어미 '-여야'에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⑤ '한다'에는 파생 접사 1개, 어미 1개가 결합되어 있다.

25004-0087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알밤'과 '알부자'의 '알-'
- ② '한시름'과 '한겨울'의 '한-'
- ③ '풋과일'과 '풋사랑'의 '풋-'
- ④ '가위질'과 '망치질'의 '-질'
- ⑤ '지우개'와 '오줌싸개'의 '-개'

25004-0088

<보기>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지난 시간에는 안은문장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 볼까요?

- ㉠ 내 취미는 노래 부르기가 아니다.
- ㉡ 나는 네가 많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 ㉢ 푸른 토마토도 며칠 후면 붉어진다.
- ㉣ 도둑이 빈집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 지민이는 키가 크다.

학생: [A]

선생님: 네, 아주 잘 분석하셨습니다.

- ① ㉠에서는 명사형 어미 '-기'가 쓰인 명사절이 주격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 ② ㉡에서는 명사형 어미 '-음'이 쓰인 명사절이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 ③ ㉢에서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체언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 ④ ㉣에서는 문장 성분이 생략되지 않은 관형사절이 체언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 ⑤ ㉤에서는 전성 어미 없이 안긴 절이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5004-0089

<보기>의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산 것 주기디 ㉠ 마름과 도죽마름과 姪亂(음란) 마름과 거죽말 마름과 ㉡ 수을 고기 먹디 마름과 ... ㉢ 노푼平床(평상)애 안씨마름과 時節(시절) 아닌 ㉣ 저그 밥 먹디 마름과 金銀(금은) 보비잡디 ㉤ 마름괘라.

[현대어 풀이]

산 것을 죽이지 말 것과 도적질 말 것과 음란하지 말 것과 거짓말 말 것과 술 고기 먹지 말 것과 ... 높은 평상에 앉지 말 것과 때 아닌 적에 밥 먹지 말 것과 금은보배 잡지 말 것이다.

- ① ㉠: 명사형 어미 '-음'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 음성 모음으로 이루어진 체언 뒤에서는 목적격 조사 '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를 표기할 때 이어 적기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 시간을 의미하는 명사 뒤에서 '의'가 부사격 조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중세 국어에서는 접속 조사가 접속의 대상이 되는 마지막 말 뒤에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5004-0090

<보기>의 선생님이 제시한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지난 시간에 국어의 음운 변동의 유형을 교체, 첨가, 탈락, 축약으로 구분해 보았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발음할 때 여러 번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를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다음자료에서 음운 변동이 몇 번 일어난 단어끼리 묶여 있는지 파악하고, 일어난 음운 변동의 유형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자료]

㉠ 옷담[온딱], 칩발[척뵈]

㉡ 낮일[난닐], 꽃이슬[꼰니슬]

㉢ 쪽빛[쪽뵈], 반달낫[반 : 달란]

㉣ 글개[글개], 쥐불놀이[쥐불로이]

㉤ 복합적[보캅쩍], 합집합[합찌팝]

	묶음	단어별 음운 변동이 일어난 횟수	일어난 음운 변동의 유형
①	㉠	3회	교체, 탈락
②	㉡	2회	교체, 첨가
③	㉢	2회	교체
④	㉣	2회	첨가, 탈락
⑤	㉤	2회	교체

25004-0091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 여기는 덧신을 신고 관람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

㉡ 언니가 고무줄로 묶어 준 머리가 아직도 안 풀렸다.

㉢ 시골 논밭에는 내가 모르는 온갖 작물이 자라고 있었다.

㉣ 옷의 앞뒤가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① ㉠과 ㉡에는 어근과 어근이 의미적으로 대등하게 결합한 합성어가 사용되었다.

② ㉠과 ㉢에는 어떠한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가 사용되었다.

③ ㉠과 ㉣에는 두 절을 대등하게 연결한 문장이 사용되었다.

④ ㉡과 ㉢에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이 생략된 절이 사용되었다.

⑤ ㉢과 ㉣에는 한 어근이 다른 어근을 꾸며 주는 관계로 결합한 합성어가 사용되었다.

25004-0092

<보기>의 [A]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 높임 표현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문장을 만들어 보고, 기준을 차례로 적용하여 분류해 봅시다.

기준 1: 격식체의 상대 높임을 사용하였습니까?	→	
↓ 예		아니요
기준 2: 상대 높임의 등급이 하십시오체보다 낮습니까?	→	
↓ 예		아니요
기준 3: 객체를 높이는 동사를 사용하였습니까?	→	
↓ 예		아니요
기준 4: 주체를 높이는 조사나 어미를 사용하였습니까?	→	[A]
↓ 예		아니요

- ① 아저씨께서 할머니께 건강을 여쭙보셨다.
- ② 저는 지난 금요일에 선생님을 뵈었습니다.
- ③ 자네가 대신 어른들께 안부 좀 전해 주시게.
- ④ 이번에는 형님이 할머니를 좀 모시고 가 주실래요?
- ⑤ 이 꽃은 당신이 직접 어머님께 드리는 게 어떻겠소?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사는 다른 단어의 뒤에 붙어 특정한 기능을 하는 단어 부류이다. 조사는 기능에 따라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로 나눌 수 있다.

(가) 내가 모기를 잡았다. (나) 내가 모기도 잡았다.
(다) 나도 모기와 파리를 잡았다.

(가), (나)에서 '가'가 붙어 주어를 나타내고, (가), (다)에서는 '를'이 붙어 목적어를 나타낸다. 이처럼 조사중에서 앞에 오는 단어가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해 주는 조사를 격 조사라고 한다. 반면에 조사 '도'는 (나)에서는 목적어에 사용되었고, (다)에서는 주어에 사용되었다. '도'가 여러 문장 성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까닭은 단어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해 주지 않고, 단어에 특정한 의미를 더해 주기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정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다)의 '와'는 앞뒤에 있는 말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조사를 접속 조사라고 한다.

격 조사는 체언에 결합하여 그 체언이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등의 자격을 가지도록 해 준다. 그런데 격 조사가 나타날 수 없는 자리에 '이/가'나 '을/를'이 나타날 때가 있다.

(라) 연습 문제가 쉽지가 않네. (마) 차가 빨리를 못 가네.

(라)에서 주어는 '연습 문제가'이다. 그런데 '쉽지' 뒤에도 '가'가 붙었고, '쉽지가 않네'는 서술어이다. 즉 이때 '가'는 용언의 활용형 뒤라는 격 조사가 결합할 수 없는 위치에 나타나고, 격 조사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마)에서 부사 '빨리' 뒤에 '를'이 붙었는데, '빨리를'은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를'은 목적격 조사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격 조사와 같은 형태이지만 격 조사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조사는 보조사로 처리할 수 있다. 격 조사 중에서 부사격 조사는 다른 격 조사에 비하여 실질적인 의미가 강하게 느껴져, 의미에 따라 부사격 조사를 세분화하기도 한다. 예컨대 장소, 도구, 방향 등의 의미를 기준으로 부사격 조사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사격 조사와 보조사를 혼동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상으로 간다.'와 '정상까지 간다.'의 '으로'와 '까지'는 모두 방향과 관련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으로'가 결합한 말은 부사어가 되는 반면에, '까지'는 '나까지 왔다.', '이 문제까지 풀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주어, 목적어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 즉 '으로'는 부사격 조사이고, '까지'는 보조사인 것이다.

중세 국어에도 다양한 조사가 존재하였고, 이 조사들도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의 방식으로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중세 국어 시기에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기 때문에 같은 격이라도 목적격 조사 '을/을', '를/를', 관형격 조사 '의/의'처럼 모음 조화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부사격 조사는 '애/에/에'나 '의/의'처럼 현대 국어보다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움', '벗', '사'와 같이 현대 국어에는 없는 형태의 보조사도 존재하였다.

25004-0093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국어의 조사는 격 조사와 보조사의 두 부류로 나뉜다.
- ② 격 조사가 나타날 수 없는 자리에는 보조사도 나타날 수 없다.
- ③ 부사격 조사는 다른 격 조사에 비하여 실질적인 의미가 약하다.
- ④ 격 조사와 형태가 같은 조사가 체언이 아닌 단어와 결합하는 사례가 있다.
- ⑤ 격 조사는 생략될 수 있으며, 격 조사가 생략되면 보조사가 격을 나타낸다.

25004-009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아츠미는虛空에 나아 노다가(아침에는 허공에 나아가 놀다가)
- ㉡ 나눈오직 여슬 머구며 孫子를놀이고
(나는 오직 옛을 머금어 손자를 놀리고)
- ㉢ 그 주근 사르미비를(그 죽은 사람의 배를)
- ㉣ 그되내 各各 훈 아들음 내야(그대들이 각각 한 아들씩 내어)
- ㉤ 王벗너를 스랑티 아니흐시린댄(왕만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실진대)

- ① ㉠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부사격 조사가 사용되고 있다.
- ② ㉠의 '눈'은 부사어에, ㉡의 '눈'은 주어에 쓰이고 있다.
- ③ ㉢에서 관형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사용되고 있다.
- ④ ㉣의 '를'과 ㉤의 '를'은 모음 조화의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⑤ ㉣의 '음'과 ㉤의 '벗'은 앞에 온 단어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해 주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버지’라는 단어와 의미가 반대되는 단어를 생각해 보자. 대부분 ‘어머니’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이처럼 의미상 서로 짝을 이루어 반대되는 의미 관계를 ‘반의 관계’라고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듯이,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는 의미상 공통점을 가지되 하나의 기준이나 의미 특성의 차이로 대립을 이룬다. 이를 ‘[]’로 표현하는 의미 자질로 설명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별]에 의해 배타적인 이질성을 지니고 있기에 반의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이 되는 의미 자질을 [세대]로 설정하면 ‘할아버지’ 또는 ‘아들’이 반의어가 될 수 있다. 반의어는 크게 등급 반의어, 상보 반의어, 관계 반의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등급 반의어는 극과 극의 두 대립적 축을 상정하여 두 단어 사이에 중간 상태, 즉 등급의 정도가 존재할 수 있는 반의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등급 반의어의 경우, 한 단어가 포함된 문장의 진술은 상대 반의어의 부정 진술을 함의(含意)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그는 부지런하다.’는 ‘그는 게으르지 않다.’를 의미하지만, 역으로 ‘그는 게으르지 않다.’가 ‘그는 부지런하다.’를 의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등급 반의어의 어휘들은 ‘부지런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다.’처럼 동시 부정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두 단어 사이에 중간 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그녀보다 더 부지런하다./게으르다.’와 같이, ㉠ 등급 반의어는 비교 표현에 쓰일 수 있다. 등급 반의어가 나타내는 정도나 등급은 단계적인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상보 반의어는 두 단어가 서로 양분되는 배타적 반의 관계에 있는 반의어이다. 상보 반의어는 등급 반의어와는 달리 반의 관계를 이루는 한 단어가 포함된 문장의 진술은 상대 반의어가 포함된 문장의 부정 진술을 함의한다. ‘홀수이다.’는 ‘짝수가 아니다.’이며, 역으로 ‘짝수가 아니다.’는 ‘홀수이다.’를 의미한다. 중간 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들 어휘는 동시 부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2는 1보다 더 짝수이다./ 홀수이다.’가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 상보 반의어는 비교 표현에도 쓰일 수 없다.

끝으로 관계 반의어는 두 단어 중에서 하나가 성립하면 반대편의 단어도 반드시 존재하는, 상호 의존적인 단어 쌍을 가리킨다. 예컨대 ‘사다’라는 사건이 성립하면 반드시 ‘팔다’라는 사건도 동시에 성립한다. 또한 어떤 사람을 ‘스승’이라고 부른다면, 이에 대응하는 ‘제자’의 존재가 암묵적으로 가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 관계 반의어에는 비교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다. 가령 ‘내가 친구보다 빵을 더 샀다./팔았다.’는 자연스럽지만, ‘갑은 을보다 더 스승이다./제자이다.’는 자연스럽지 않다.

어휘 습득과 사용의 국면에서 반의 관계를 이루는 어휘들 사이의 위상은 동등하지 않다. 등급 반의어 중에서 척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둘 중 보다 확연하게 지각되는 어휘일수록 습득이 쉬울 뿐 아니라 언중들이 쓰기에도 유용하여, 두 단어 중 어느 한 단어가 대표적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길다/짧다’, ‘높다/낮다’와 같은 반의 관계에서 ‘길다’나 ‘높다’는 ‘짧다’나 ‘낮다’보다 먼저 습득되는 경향이 있으며, ‘길이’나 ‘높이’는 척도 명사로 쓰이지만 ‘*짧이’나 ‘*낮이’는 쓰이지 않는다.

(* 는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임.)

25004-0095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버지’와 ‘할머니’는, [성별]뿐만 아니라 [세대]의 측면에서도 이질성을 지니고 있기에 반의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없겠군.
- ② ‘빠르다’와 ‘느리다’는, ‘말이 빠르지 않다.’가 반드시 ‘말이 느리다.’를 함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급 반의어에 해당하겠군.
- ③ ‘뜨겁다’와 ‘차갑다’는, 그 중간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인 ‘미지근하다’가 존재하므로 상보 반의어에 해당하겠군.
- ④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떤 임대인에는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존재가 전제된 것이므로 관계 반의어에 해당하겠군.
- ⑤ ‘넓다’와 ‘좁다’는, 척도 명사로 ‘넓이’는 쓰이지만 ‘*좁이’는 쓰이지 않는 것에서 ‘넓다’가 ‘좁다’보다 대표적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겠군.

25004-0096

윗글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밝다’ - ‘어둡다’ ② ㉠: ‘가깝다’ - ‘멀다’
- ③ ㉡: ‘합격’ - ‘불합격’ ④ ㉡: ‘오른쪽’ - ‘왼쪽’
- ⑤ ㉢: ‘남편’ - ‘아내’

25004-0097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음절 유형이나 모음 부류 등의 음운론적 지식은 국어에서 형식 형태소의 형태를 선택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선 국어의 음절을 중성이 없는 음절과 중성이 있는 음절로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중성이 없는 음절 뒤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가, 중성이 있는 음절 뒤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가 선택되지요. 다만 ‘밥’과 ‘국’에서 볼 수 있듯이 ‘와/과’의 경우는 예외이고, ‘갓길로’처럼 앞말이 ‘ㄹ’로 끝나는 경우는 중성이 없는 음절 뒤에서와 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가 선택되기도 합니다. 또한 국어의 모음을 양성 모음, 음성 모음, 그리고 중성 모음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한글 맞춤법 제16항에서는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고 하여 어간의 모음에 따라 어미의 모음이 결정됨을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이러한 모음 조화의 경우에는 예외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의 목록을 참고하여 [예문]에 나타난 형식 형태소의 선택 양상을 분석해 볼까요?

은/는, 와/과, 으로/로, -아서/어서, -았/었-

[예문] 그는 평소에 원인과 결과를 거짓말로 꾸며대던 사람이어서, 속이 뻘뻘 들여다보였다.

학생: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그는’은 중성이 없는 음절 뒤에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가 선택된 것입니다.
- ② ‘원인’과 ‘결과’는 중성이 있는 음절 뒤이지만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가 선택된 것입니다.
- ③ ‘거짓말로’는 중성이 ‘ㄹ’인 음절 뒤에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가 선택된 것입니다.
- ④ ‘사람이어서’는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ㅣ’라서 ‘어’로 시작하는 형태가 선택된 것입니다.
- ⑤ ‘들여다보였다’는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이지만 ‘어’로 시작하는 형태가 선택된 것입니다.

25004-009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내가 키우는 강아지는 눈이 정말 크다.
- ㉡ 저 노을이 다 지기 전에 산에서 내려가야 한다.
- ㉢ 그녀는 자기 아들이 어른이 되었음을 비로소 실감했다.
- ㉣ 그 게으른 아이는 해가 중천에 뜨도록 일어나지 않았다.

- ① ㉠과 ㉡에는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절이 있다.
- ② ㉡과 ㉢에는 모두, 안긴절 속에 관형어가 들어 있다.
- ③ ㉠은 서술절 속에 부사어가, ㉡은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들어 있다.
- ④ ㉠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절이 있고,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절이 있다.
- ⑤ ㉢에는 보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절이 있고, ㉣에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절이 있다.

25004-0099

<보기>의 ㉠~㉣이 쓰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현대 국어에서는 '나무의 높이를 잰다.', '높이 날았다.'의 '높이'에 서처럼 파생 명사와 파생 부사가 형태상 구분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접미사 '- 이/의'와 ㉡부사 파생 접미사 '- 이'가 각각 존재하여 파생 명사와 파생 부사가 형태상으로 구분되었다. 명사 파생 접미사 '- 이/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 이', 음성 모음 뒤에서는 '- 의'가 사용되었고, 부사 파생 접미사 '- 이'는 모음 조화에 상관없이 결합하였다. 그런데 중세 국어에서는 평칭의 유정 체언 뒤에 오는 ㉢관형격 조사의 형태도 모음 조화에 따라 '이/의'였고, 이와 같은 형태가 '나중 [저녁]', '옹 [위]' 등 일부 특수한 체언 뒤에서는 ㉣부사격 조사로 쓰일 때도 있었다. 또한 ㉤주격 조사 '이'는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쓰였다. 이처럼 같은 형태가 서로 다른 문법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형태가 결합한 말의 품사나 문장 성분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 ① ㉠: 노뽕논훈자히오(높이는 한 자이고)
- ② ㉡: 뜰들 너비 퍼니라(뜻을 널리 퍼니라)
- ③ ㉢: 山川스 구벽에 逍遙하며(산천의 굽이에 노닐며)
- ④ ㉣: 아침뛰여든 또 나조히니고(아침 베면 또 저녁에 익고)
- ⑤ ㉤: 그 말쓰미 工巧코 微妙하야(그 말씀이 공교하고 미묘하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에서 여러 문장 성분들을 선택하고 제약하는 핵심은 서술어이다. 문장 성분은 서술어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1차 성분과, 서술어와 직접 관계를 맺지 않는 2차 성분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문장 성분 중 주어, 목적어, 보어 및 부사어 일부는 1차 성분이고 관형어와 독립어, 그리고 일부 부사어는 2차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장 성분 분석에서는 1차 성분을 먼저 분석한 후 2차 성분을 분석하게 된다. '민수의 동생이 밥을 많이 먹는다.'는 다음과 같이 문장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다.

1차 성분 분석	2차 성분 분석
주어: 민수의 동생이 목적어: 밥을 부사어: 많이 서술어: 먹는다	관형어: 민수의

'민수의 동생이', '밥을', '많이', '먹는다'는 각각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민수의'는 서술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2차적인 분석 대상이 되고,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관형어이다. 관형어와 마찬가지로 부사어도 다른 성분을 수식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지만 관형어가 체언하고만 관련을 맺는 것과 달리 부사어는 서술어를 수식하기도 하므로 서술어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부사어는 1차 성분이 된다.

부사어를 제외한 1차 성분, 즉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는 문장의 뼈대를 이루는 성분이라고 주성분이라 하고 부사어와 관형어는 이들 주성분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성분이라고 부속 성분이라 한다. 그리고 감탄사와 호격 조사를 취한 체언 등이 독립어로 쓰이면 문장의 여타 성분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독립 성분이라 한다. 그런데 부사어 중에는 ㉠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들도 있다.

25004-0100

윗글을 읽고 <보기>의 문장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어둠 속에서 불빛 비슷한 것이 보였다.

- ① '어둠 속에서'는 부사어로 1차 성분에 해당한다.
- ② '불빛 비슷한 것이'는 주어로 1차 성분에 해당한다.
- ③ '어둠'은 '속'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2차 성분에 해당한다.
- ④ '불빛'은 관형사절에 포함된 목적어로 1차 성분에 해당한다.
- ⑤ '불빛 비슷한'은 '것'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2차 성분에 해당한다.

25004-0101

밑줄 친 부분이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나는 형과 크게 싸웠다.
- ② 그 사람은 무섭게 생겼다.
- ③ 그는 사물함에 책을 넣었다.
- ④ 그는 굴러오는 공을 발로 찼다.
- ⑤ 나는 귀엽게 구는 강아지에게 정이 들었다.

25004-0102

<보기>의 ㉠, ㉡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 기 >

마음이 언짢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애써 밝고 환한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위 문장의 '언짢고'와 '밝고'의 표준 발음은 무엇일까요?
 학생: '언짢고'는 ㉠로, '밝고'는 [발꼬]로 발음합니다.
 선생님: 잘 알고 있군요. 그렇다면 그렇게 발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 ㉡

	㉠	㉡
① [언짢꼬]		'언짢고'를 발음할 때에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고, '밝고'를 발음할 때에는 된 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② [언짢꼬]		'언짢고'와 '밝고'를 발음할 때에는 된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③ [언짢꼬]		'언짢고'를 발음할 때에는 'ㅎ' 탈락이 일어나고, '밝고'를 발음할 때에는 된소리 되기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④ [언짢꼬]		'언짢고'를 발음할 때에는 된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밝고'를 발음할 때에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⑤ [언짢꼬]		'언짢고'와 '밝고'를 발음할 때에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25004-010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오늘은 금요일이다.'에서의 '오늘'은 명사이지만, '오늘 비가 왔다.'에서의 '오늘'은 부사이다. 이처럼 하나의 단어가 두 개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 ①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크지 못한다.
- ② 사과 일곱 개를 샀다.
둘에 다섯을 더하면 일곱이다.
- ③ 너무 높은 호박은 맛이 좋지 않다.
이제는 나도 늙어서 예전 같지 않다.
- ④ 명주는 무명만큼 질기지 못하다.
방 안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 ⑤ 그 모임은 매우 가족적이어서 항상 기다려진다.
이곳의 가족적 분위기가 좋아서 자주 방문한다.

25004-0104

<보기>에 나타나는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羅雲(나운)이 솔보더 ㉠ 부텃 法(법)이 精微(정미)하야 저믄 아히 어느 ㉡ 들즈보리잇고 아래 즈조 듣즈반 마른 즉자히 도로 니저 ㄱ뵐 썩니니 이제 저믄 저그란 안죽 ㉢ 므슴싣잘 노다가 즈라면어루 法(법)을 비호스보리이다 ㉣ 부테 니르샤디 자본 이리 無常(무상)하야 ㉤ 모물물 미듬 거시니 네 목수물 미더 즈랴 時節(시절)을 기드리는다 하시고 다시 說法(설법)하시니 羅雲(나운)의 므스미 여러 아니라

[현대어 풀이]
 나운이 사되되, “부처님의 법이 정미해서, 어린아이가 어찌 들겠습니까? 지난번에 자주 들은 말은 곧바로 도로 잊어, 피로할 뿐이니, 이제 어린 때에는 아직 마음껏 놀다가 자라면 가히 법을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잡은 일이 무상하여 몸을 못 믿을 것이니, 네가 목숨을 믿어, 자랄 때를 기다리느냐?” 하시고, 다시 설법하시니, 나운의 마음이 열려 알게 되었다.

- ① ㉠: 높임의 대상이 되는 명사 뒤에 관형격 조사 '시' 사용되었다.
- ② ㉡: '羅雲(나운)'을 높이기 위해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 잇 -'을 사용하였다.
- ③ ㉢: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ㅅ, ㅇ' 등이 사용되었다.
- ④ ㉣: 모음 'ㅑ' 뒤에서는 주격 조사의 형태가 'ㅣ'로 실현되었다.
- ⑤ ㉤: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

25004-0189

<학습 자료>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학습 자료 >

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오늘 하루도 뜻있게 보내자. • '뜻이[뜨시]'와 '뜻있게[뜨던께]'에서 '시' 다르게 발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찰	'뜻이[뜨시]'에서는 '시' 그대로 연음되는데, '뜻있게[뜨던께]'에서는 '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아 대표음 'ㄷ'으로 교체되어 뒤 음절 첫소리로 발음된다.	
추가 자료 수집	그대로 연음되는 경우 밤낮으로[밤나즈로] 팔을[파블] 무릎에서[무르케서]	대표음으로 교체되어 뒤 음절 첫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밤낮없이[밤나답씨] 팔알[파달] 무릎앞에[무르반자]
결론	그대로 연음되는 경우와 대표음으로 교체되어 뒤 음절 첫소리로 발음되는 경우는 ㉠에 따라 구분된다.	

- ① 뒤따르는 형태소에 받침이 있는지
- ② 뒤따르는 형태소가 2음절 이상인지
- ③ 뒤따르는 형태소가 자립적으로 쓰이는지
- ④ 뒤따르는 형태소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지
- ⑤ 뒤따르는 형태소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지

25004-0190

<보기>의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안은문장은 한 절이 다른 절을 문장 성분의 일부로서 안고 있는 문장을 가리킨다. 이때 안겨 있는 절을 '안긴절'이라고 하는데, 안긴절에는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다. 그런데 하나의 절이 안긴절로 쓰일 때 원래의 절 속에서는 쓰였던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 ㉠ 동생은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곧바로 알았다.
- ㉡ 우리는 그녀가 아침마다 읽던 책의 내용이 궁금했다.
- ㉢ 동네 아이들은 화단에 핀 꽃을 함부로 꺾고는 했다.
- ㉣ 글의 내용이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다.
- ㉤ 우리는 먼지 하나 없게 거실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 ① ㉠: 명사절이 안겨 있고, 그 절 속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 ② ㉡: 관형사절이 안겨 있고, 그 절 속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③ ㉢: 관형사절이 안겨 있고, 그 절 속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④ ㉣: 명사절이 안겨 있고, 그 절 속에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⑤ ㉤: 부사절이 안겨 있고, 그 절 속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25004-0191

<보기>의 ㉠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피동사와 사동사는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어서 의미를 잘 구분해야 해요. '아이가 엄마품에 안기다.'의 '안기다'는 피동사입니다. 그런데 같은 형태의 '안기다'가 사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안기다'가 사동사로 쓰인 예문을 만들어 볼까요?

학생: '회사에 손해를 안기다.'도 되나요?

선생님: 네, 이 문장에서의 '안기다'는 '안다'의 사동사로 쓰였습니다. 이처럼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같은 예문을 더 만들어 볼까요?

학생: ㉠

	피동사가 쓰인 예문	사동사가 쓰인 예문
①	벽에 있던 못 때문에 옷이 조금 찢겼다.	탈을 만들려고 동생에게 종이를 찢겼다.
②	사람들의 노력으로 산불이 금방 잡혔다.	울던 아이들에게 겨우 손가락을 잡혔다.
③	그의 소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형은 자기가 읽던 글을 나에게도 읽혔다.
④	치마가 길어서 지저분한 바다에 끌렸다.	향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다.
⑤	드디어 지루했던 이야기의 끝이 보였다.	친구는 자랑을 하며 내게 선물을 보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선생님, '줍쌀'은 '조'와 '쌀'이 합쳐진 말인데, 받침 'ㅂ'은 왜 표기하나요?

선생님: 한글 맞춤법 제31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31항에서는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고 규정합니다.

학생: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에서 'ㅂ' 소리가 덧나나요?

선생님: 중세 국어의 흔적이 현대 국어에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단어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습니다. '쌀'의 옛말인 '쌀'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쌀'의 'ㅂ'은 훗날 탈락하였지만 탈락 이전에 만들어진 복합어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줍쌀'이 그

러한 경우입니다. '쁘리(싸리)', '빼(때)' 등도 이에 해당되어서 현대 국어에서 '뽕싸리(대+ 싸리), 입때(이 + 때)'처럼 'ㅂ'을 표기하는 것입니다. 용언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내- +뜨다'를 '넙뜨다'로 표기하는 것 역시 '뜨다'의 옛말이 '쁘다'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그렇군요. 'ㅎ' 소리가 덧나는 경우도 궁금해요.

선생님: '수컷(수 + +것)'이 이러한 경우입니다. '수 -'의 옛말이 '숯'이었고 'ㅎ'이 '것'의 'ㄱ'과 축약되어 'ㅋ'으로 소리가 나며, 이를 현대 국어의 표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세 국어에서 'ㅎ'을 끝소리로 가졌던 체언들을 'ㅎ'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데, '하늬(하늘), 돌(돌), 나랏(나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암- +닭'을 '암탉'으로 표기하는 것도 '암-'의 옛말이 'ㅎ' 종성 체언이었기 때문이죠.

학생: 선생님, 그런데 중세 국어 자료인 '하늬 고지(하늘의 꽃이)'에는 'ㅎ'이 나타나지 않아요.

선생님: 중세 국어에서 'ㅎ' 종성 체언은 뒤따르는 조사에 따라 그 실현 양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늬 고지(하늘의 꽃이)'처럼 관형격 조사 '시' 뒤따르면 'ㅎ'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니다. 또한 '하늘히 보내시니(하늘이 보내시니)'의 '하늘히(하늬+ 이)'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뒤따르면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었습니다. 끝으로, '하늘토 뒤며(하늘도 움직이며)'의 '하늘토(하늬+ 도)'처럼 'ㄱ'이나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뒤따르면 'ㅎ'은 뒤따르는 'ㄱ', 'ㄷ'과 어울려 'ㅋ', 'ㅌ'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윗글을 참고하여 ㉠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 '안 + 밖'을 '안팎'으로 적는다.
- ㉡ '술 + 가락'을 '술가락'으로 적는다.
- ㉢ '휘 - + 쓸다'를 '휩쓸다'로 적는다.
- ㉣ '돕 - + - 아서'를 '도와서'로 적는다.
- ㉤ '바늘 + - 질'을 '바느질'로 적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25004-0193

[A]를 참고할 때, 중세 국어 자료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세 국어 자료	들어갈 말
①	<input type="checkbox"/> (바당 + ㅅ) 프리 (바다의 물이)	바닷
②	<input type="checkbox"/> (ㅎ낱 + 도) 못 미치리니 (하나도 못 미치리니)	ㅎ낱도
③	<input type="checkbox"/> (얹 + ㅁ로) 尙케 (안으로 향하게)	안ㅎ로
④	<input type="checkbox"/> (나랏 + 애) 도라오시니 (나라에 돌아오시니)	나라해
⑤	복성화 선 <input type="checkbox"/> (꺽 + 과) (복숭아나무 선 길과)	길과

25004-020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지금 누가 말했어?
 ㉡ 언제 여기를 또 와?
 ㉢ 이따가 어디 갈 거야?
 ㉣ 형이 어디를 못 가?
 ㉤ 뭐 먹고 왔노?

- ① ㉠의 마지막 억양이 상대적으로 내려가면 누군가가 말을 했는지의 여부를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② ㉡에 대해, '다음 주에 또 올 거야.'라고 대답한다면 ㉡을 설명 의문문으로 이해한 것이다.
- ③ ㉢에 대해, '아니, 안 갈 거야.'라고 대답한다면 ㉢을 판정 의문문으로 이해한 것이다.
- ④ ㉣을 '형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했다면 ㉣에 물음표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다.
- ⑤ ㉤에 대해, 먹은 음식의 종류를 언급하여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5004-0204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표현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 보 기 > —

- 太子 | 이제 어디 있는 ㉠ (태자가 이제 어디 있는가?)
- 그대 子息 없더니 무슨 罪 ㉡ (그대 자식 없더니 무슨 죄인가?)
- 어마니물 아라보리로소 ㉢ (어머님을 알아보겠습니까?)

	㉠	㉡	㉢
①	- 뇨	아	- 니잇가
②	- 뇨	아	- 니잇고
③	- 뇨	오	- 니잇가
④	- 녀	오	- 니잇가
⑤	- 녀	아	- 니잇고